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해님 아버지, 물질은
명이 발달할수록 피폐해지는 인간사회에 하나
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셔서 상처받은
심령이 복음으로 치유 받는 역사의 종인들
로 쓰임 받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4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7월 23일 (토) 제 159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교회공동체만이 인종갈등 풀 수 있다!

CT, 총격사건 주변 목회자들 통해 듣는 '사랑과 용서' 대 화합의 메시지 보도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과 그에 맞선 흑인의 과격 저항으로 미국 사회가 흑백 인종 간 분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인종차별 반대운동 '블랙 라이브즈 매터(BLM·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를 비롯해 공권력 남용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고, 이로 인해 촉발된 미국 내 흑백갈등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대선 주자들이 엇갈린 시각을 내놓은 데다 양 진영의 지지자 발언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며칠 사이로 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찰과 흑인 간의 총격이 빚어내는 긴장은 한마디로 미국 사회의 고질병인 '흑백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며, 이렇게 가다가는 LA폭동을 유발한 '로드니 킹'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

는 '타핑포인트'의 기로에 미국이 놓여 있다는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흑백 갈등으로 혼돈의 주말을 보낸 미국인들에게 교회공동체만이 인종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말한다(The Church at Its Racial Turning Point: Five ways forward after the recent tragic events). 아울러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역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나 소감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다시 하나로 될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준다(What Do You Preach After a Week Like This?: Reactions from 10 pastors close to the recent shootings in Dallas, Baton Rouge, and Falcon Heights).

도날드 헌터(Donald Hunter, New Beginning Baptist Church, Baton Rouge, Louisiana)

알톤 스티어링이 살해된 베이톤 루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프리카인 목사이자 도날드 헌터는 시편 11장 5절을 주제로 설교했다. "여호와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우리를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이면,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을 보라!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시편 34: 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건지심을 받는다."

그러나 헌터 목사는 교인들 중 일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한다. 참고 견뎌야 한다고 권면하지만, 아직은 모든 일은 신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우리는 저 임금 커뮤니티로 알톤 형제 역시 가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앉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다리지는 않겠다. 바로 빈부의 격차가 이번 사건의 주원인이라는 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비 머시(Obie Bussey, Golden Gate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에 항거하는 흑인 주도의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Missionary Baptist Church, Dallas, Texas)

불과 2주 전, 흑인교회인 골든게이트선교침례교회는 장로교 백인목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다. 달라스에서는 100여명의 목회자들이 주축이 돼 인종간의 관계 진전을 위한 프로그램(pulpit swap)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흑인 목회자가 백인 교회로, 백인 목회자가 흑인 교회로 번갈아가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버시 목사는 "교회는 항상 치유, 인종화합, 경찰의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누구도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 커뮤니티가 느끼는 불신과 불안을 이해하고 동시에 경찰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 첫날 참석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무더위 속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 성료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강사 원팔연 목사

7월의 뉴욕 날씨답게 무더위 속에서 3일간 치러진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 담임)는 성결교단 소속으로 정진경 목사 이후 성결교 목사로는 2번째로 초청됐다. 따라서 뉴욕의 성결교 소속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띠었다.

뉴욕교회협회장 이종명 목사는 첫날 대회사에서 37년의 역사를 가진 할렐루야 뉴욕대회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은 세속화, 인본주의, 혼잡주의, 신비주의, 동성결혼, 윤리성 상실, 이단 사이버 난무하는 혼탁한 시기"라며 "이러한 비진리, 불합리를 철저히 타파하고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뉴욕 도성에 성령의 불길기 타고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결쳐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날 대회는 이만호 목사(준비위원장) 인도로 이레연합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필그림선교무용단의 희망의 복소리, 대회사 이종명 목사, 특별찬양 박성하 목사, 대표기도 김성국 목사(퀸즈장

로교회),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 강사소개 김석형 목사(용아일랜드성결교회), 찬양 성결교연합성가대, 설교 원팔연 목사, 헌금기도 주효식 목사(수석협동총무), 헌금송 케리그마 남성중창단, 광고 한준희 목사(서기), 축도 박희소 목사(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 날 대회는 최창섭 목사(고문) 인도로 엘피스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장학금 전달식(21명에 각 500달러씩), 특송 강성식 찬양사역자, 기도 김영환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성경봉독 최원호 장로, 설교 원팔연 목사, 헌금기도 이주의 장로, 헌금송 목사/장로성가대, 광고 임용수 목사(부서기), 축도 방지각 목사(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셋째 날 대회는 김홍석 목사(부회장) 인도로 강성교회찬양의 경배와 찬양, 기도 허연행 목사(협동총무), 성경봉독 이상호 이사장, 찬양 뉴유연합찬양대, 설교 원팔연 목사, 헌금기도 이준성 목사(진행위원), 헌금송 권사선교협창단, (강사에게) 감사패 증정 이종명 목사, 광고 박진하 목사(총무), 축도 장석진 목사(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10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발행인 목사 myong@joenchulpan.com

WiFi

2면 '와이파이' 로 고통 받는 사람 증가하고 있다!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4면 인터뷰/기타리스트 김지희 자매

www.rpts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2016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 | |
|---------|----|------------|
| 신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선 교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제 출 서 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6년 9월 2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6년 9월 3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6년 9월 6일(화) - 8일(목)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와이파이’ 로 고통 받는 사람 증가하고 있다!

뉴스위크, ‘전자기과민성증후군(EHS)’ 실체에 대한 논란 보도

와이파이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두통, 메스꺼움, 코피, 수면장애 등 수많은 증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와이파이를 통해 발생하는 ‘전자기과민성증후군(EHS)’은 과학적으로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 증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뉴욕 한 복판에서 네덜란드까지 와이파이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어쩌면 공익 서비스처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기술의 가치 없는 진전이라고 부

를 수 있는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과 함께, 심지어는 깊은 산 속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행태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위 “와이파이 앨러지”를 놓고 벌이는 찬반 논쟁과 함께 지구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보도한다(SCIENCE SAYS WI-FI ALLERGIES ARE FAKE-BUT PEOPLE ARE STILL SICK).

검시관에게 “와이파이가 내 딸을 죽였다”고 단언했다.

한편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12세 소년의 부모도 아이가 학교 와이파이의 강력한 신호 탓에 아프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는 “아이가 EHS로 진단 받았다”고 밝혔다. 그들은 “아이가 두통, 메스꺼움에 시달리고 코피를 자주 쏟는다”며 “학교측이 2013년 와이파이를 설치한 이후부터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통신기술 회사인 아이소트로프에 교내 전자기파 방출량을 측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소트로프의 교내 전자기파 측정 결과 미국 연방정부와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기준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왔다”고 학교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와이파이 신호에 노출되는 것과 질병 사이에는 과학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측과 그와 정반대로 사람들이 와이파이 때문에 매일 앓는다고 주장하는 측은 웹사이트와 신문, 학술지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정신의



두통, 메스꺼움, 코피, 수면장애... 교내설치 후 학생들 고통 호소 24시간 존재하는 영속적 공중보건 위협... 산속 도피생활자 늘어

제니가 열다섯 살에 자살한 지 1년이 지났다. 어머니 데브라 프라이는 최근 툰립과 해바라기를 들고 묘지를 찾았다.

영국 옥스퍼드셔의 치료 간호사인 프라이는 “처음엔 매일 딸이 묘지에 갔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하루걸러 한 번이 됐다가 지금은 사흘이나 다섯에 한 번으로 횟수가 줄었다.”

한숨을 내쉬는 그녀는 진이 빠진 듯 피곤해 보였다. 딸아이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녀의 탈진은 제니를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프라이는 지난 1년 동안 딸아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

각하는 것과 치열하게 싸웠다.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기술의 가치 없는 진전’을 가리킨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심하게 양극화된 과학 논쟁에 휘말렸다.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서 발생한 증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라는 문제다.

제니는 2년 반 넘게 두통과 피로로 호소했다.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밤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프라이는 제니의 증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수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새 매트리스를 사고 커튼을 두꺼운 천으로 바꿨다. 아랫니와 윗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이 두통의 원인인지 알아보려고 치과 교정 전문의도 찾았다. 프라이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말했다. “마치 수사관이 용의자 범위를 줄여나가 듯이 나도 증거를 바탕으로 각 증상의 잠재적인 원인을 추려 나갔다.”

지난해 5월 제니는 코를 감싸

주고 거실로 내려와,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코피가 났다고 프라이에게 말했다. 프라이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 아이가 불안해했다”고 돌이켰다. “코를 파지 그 어디에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프라이는 제니의 코피를 멎게 한 다음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검색 결과를 보며 제니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감통을 막아 치열한 ‘전자기과민성증후군(EHS)’의 피해자라고 확인했다. 논란이 많지만 EHS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이동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현대 사회의 기술이 우리에게 해로운 전자기파를 피하여 두통부터 메스꺼움, 코피, 수면장애까지 수많은 증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는 집에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를 떼어내고 대신 유선 인터넷으로 바꾼 뒤 제니의 학교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는 거부했다. 교장도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도달한 결론은 프라이와 달랐다. 와이파이 신호와 질병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믿는 것이다. 제니의 고통은 계속됐다. 집에서 괜찮았지만 학교에 가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지난해 6월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인을 규명하는 자리에서 프라이는

학연구소의 제임스 루빈 교수는 EHS가 질병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들은 신체적 증상으로 고통 받는다. 삶의 질도 때론 끔찍할 수 있다. 그들은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과학적인 증거를 살펴본 결과 EHS의 원인이 전자기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를 포함한 다른 진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갈대 크리스천!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6월 한달을 안식일로 재충전을 위해 쉬려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오신 성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사모님 이번엔 한국가시면 꼭 가보세요!”라고 추천했던 곳이 전라남도 순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순천에 도착하니 몇년전 제가 섬기는 참사랑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낙도 전도왕 “반봉혁 장로님”과 장로님이 섬기시는 순천 왕지교회 “김용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극진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반 장로님과 김 목사님 두 분 모두 순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기 사셔서 현지 사람들과 아는 허름한 골목길 맛 집들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순천만은 말 그대로 습지입니다. 습지만 15만평으로 세계 3대 습지중 하나로 꼽힙니다. 습지를 한 바퀴 돌고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위에서 습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풍아일랜드 잔디 비치처럼 보도블록으로 길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엄치는 것이 아니라 풀쭉 풀쭉 습지를 뛰어 다니는 순천만의 명물인 짬뽕어라는 작은 물고기 그리고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의 크기가 아주 다른 독특한 작은 게들이 습지 구멍구멍에서 나와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대숲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걷는 재미도 솔솔하였습니다. 순천만의 보도블록 산책에 이어 마침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었기에 약 40분 동안 배를 타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순천만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안내원의 설명 가운데 하나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되어 오늘 순천만 갈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습지는 말 그대로 습지입니다. 순천만 습지의 가장 큰 특징은 갈대밭입니다. 갈대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숲을 이루어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흔들리면서 그때마다 때론 다른 아름다운 소리를 선사합니다. 훌륭한 오케스트라도 좋은 화음을 선사하지만 세상에 제일가는 아름다운 소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한국 방문시 기회가 되면 들려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갈대소리를 들으며 배를 타고 가는데 아래를 보니 순천만의 물은 흙탕물 그 자체였습니다. 물속이 보이지 않는 아주 더럽고 탁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흙탕물이 가장 깨끗한 물인 1급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해보듯이 1급수에서만 사는 각종 새들과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하기를 우리들 눈에 보이기에 더럽고 탁한 순천만 물을 이렇게 깨끗한 1급수의 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갈대라고 합니다.

갈대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정화, 자정 능력입니다. 갈대는 물속의 더러운 균들과 나쁜 요소들을 다 자기가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타의 식물들처럼 정화 작용후 나쁜 것들을 다시 대기로 방출해 버리지 않습니다. 갈대는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고 동시에 빨아들인 나쁜 물질들을 자기 안에서 스스로 없애 버린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갈대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자기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갈대는 더럽고 탁하고 나쁜 물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을 정화시켜 1급수 물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기에 순천만의 지형은 이리저리 생겨나는 갈대 숲 때문에 계속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순천만은 원래 더럽고 탁한 물만 있는 습지지만 이런 갈대들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1급수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는 즉시 제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게 “갈대 크리스천” 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갈대와 같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는 그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거라. 어두움을 밝히는 빛 그리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거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 세상에 나가서 바로 내가 갈대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갈대 크리스천인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내 가정 안에, 내가 있는 교회 안에, 내가 있는 세상 안에 불신앙과 불의와 욕망과 정욕 등 나쁘고, 탁하고, 더럽고, 어둡고 악한 기운들을 다 빨아 들여야겠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여 성령의 불길로, 은혜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불살라 깨끗하게 태우리라. 그래서 갈대 크리스천인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맑고 영롱하고 깨끗한 영적인 1급수로 만들어 가야겠다. 바로 내가 갈대 크리스천이 되어서”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순천만 갈대가 주는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함께 나누시라.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6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Midwest University

교회공동체만이 인종갈등 풀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달라스 지역의 총격 사건에 대해, 버시 목사는 에베소서 6:10-11절과 로마서 8:28절 말씀을 통해 위로했다.

제프 긴(Jeff Ginn, Istrouma Baptist Church, Baton Rouge, Louisiana)

제프 긴 목사는 크리스천은 "이중 시민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 가고 있기에, 두 가지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여러 총격 사건 중 달라스 사건은 크리스천들에게 기도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웨이브 업'이라고 강조한다.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흥치고, 죽이고 그리고 파괴하도록 만들고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의 동조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브 라이 언 듀 나 간(Bryan Dunagan, Highland Park Presbyterian Church, Dallas, Texas)

백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듀나

간 목사는 아직까지도 이번 총격들에 대해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



얼마 전, 흑인교회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달라스 시 전역에서 흑백간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는 "에베자로서, 정의, 살름 그리고 구속이 실현되도록 열정을

다해 달려가겠다"고 말한다.

토니 에반스(Tony Evans, Oak Cliff Bible Fellowship, Dallas, Tex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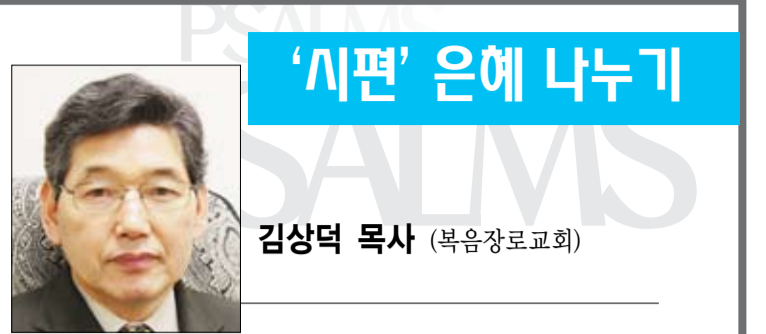
달라스 경찰사장을 비롯한 10,000

명이 넘는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토니 에반스 목사는 한마디로 "생명을 죽이는 참담한 비극으로 개인과 가정들이 극도의 슬픔과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교회 역시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교회가 바로 서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쓸려가지 말고, 세상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T. D. 제이크(T. D. Jakes, Potter's House, Dallas, Texas)

많은 경찰관들이 출석하고 있는 17,000명의 메가처치 담임으로서, 제이크 감독은 "살인들과 상업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약탈하는 젊은 흑인들의 무지함에서 큰 실망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내 가슴은 찢어진다. 우리 할아버지 역시 백인들에게 린치를 당하신 적이 있다. 아시안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의 몸이다. 따라서 피부색이나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위해 찢기고 피 흘린 그분의 고난과 부활로 이뤄진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위해 찢기고 피를 흘릴 시간이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 144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느끼는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즉,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전적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공기, 땅, 음식 등 그리고 이웃의 도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합니다.

인생의 길에 사람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은 영원을 향한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위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두가 서로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도움을 찾아야 하고 그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에 빛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눈이 밝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죽음까지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살 것인데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나는 시점부터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조명을 받을 때 우리에게 말씀대로 영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실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영원한 존재가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시들지 않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영원히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생명을 누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사람의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부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들어지는 꽃과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보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각을 받아야 그 생각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그것이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 도움을 받아야 가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하나님의 전적 도움으로 살아가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도움으로 사는 자로서 겸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순간순간 도움이 없으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더욱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조명하여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조명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원이 믿어지도록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시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진다 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sangdkim@yahoo.com

'와이파이' 로 고통 받는 사람 증가하고 있다.

(2면에서 계속)

미국 뉴욕주립대학(알버니 캠퍼스) 건강환경연구소의 데이비드 카펜터 소장은 "10년 전엔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개 사람들은 증상이 있으면 뭔가 탓할 것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 전자기파를 원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기파 때문에 삶이 회복 불가능하게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많아지면서 그의 생각도 달라졌다. 그는 EHS가 허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질병이지만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복적인 과학계를 설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계의 웅만한 도시 상층지구에선 어디든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다. 와이파이는 완전히 보편화돼 거의 공익 서비스 수준이다. 세계의 대다수 사람에겐 와이파이가 큰 혜택이다. 필요한 모든 정보(심지어 포르노도 포함)에 거의 무료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이 EHS 확산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사람에겐 우리 사회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가 사악한 적이다. 그들은 와이파이를 하루 24시간 존재하는 영속적인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믿는다.

프라이는 딸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와이파이 확산을 막으려는 운동단체를 몇몇 알게 됐다. 일부는 교내와

이파이 공유기 설치 반대에 초점을 맞춘다. 그녀는 "와이파이를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HS로 고통 받는 사람 중 일부는 현대 사회에서 탈출하기도 한다. 카



펜터 소장은 EHS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는 변호사 대프나 테코버가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EHS로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그녀는 뉴욕시에서 살며 일하다가 얼마 전 250km 떨어진 캣스킬 산속으로 이사했다. 수년 동안 전자기파 노출을 막으려고 차 안에서 자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어 결국 산속으로 들

어갔다는 설명이었다. 테코버는 "EHS 증상에서 벗어나려면 와이파이를 완전히 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EHS의 고통으로 와이파이 세계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골에 그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동체도 생겨나고 있다. 프랑스 남부의

농촌인 드롬에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EHS 피난처'가 있다. 자연보호 구역 깊숙이 자리한 그곳에선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기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그린뱅크는 인근 국립전파전문의대의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 모든 무선 신호가 금지된 '국립전자파정정구역' 덕분에 EHS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등

네가 됐다.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에는 EHS 친화 농장이 있다.

카펜터 소장은 지금 EHS가 만성 피로증후군, 섬유근육통, 걸프전증후군 같은 질병이 과학적으로 인정받기 전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런 질병은 예를 들어 피검사 등으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그런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과학이 질병으로 인정할 때까지 사회적으로 고통당한다. EHS 같은 특이한 증후군을 앓은 사람을 사회가 포용하지 않으면 아픈 것을 피하기 위해 멀리 숲속으로 피신한 그들은 사회와 격리된다."

EHS를 실재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루빈 교수도 그의 말엔 동의했다. "전자기파가 EHS 증상의 원인인지 테스트하느라 과학계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EHS와 전자기파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매달리다보니 치료 방법은 찾아내지도 못했다."

EHS에 시달리는 사람은 와이파이의 전자기파가 대로와 고속도로, 기계 전면과 모퉁이에서 방출되는 것을 모두가 실제로 볼 수 있다면 그 폐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프라이는 전자기파 신호의 강도를 측정하는 계량기를 갖고 다닌다. 계량기는 크기가 작아 사람들이 흔히 휴대전화인 줄 안다. 프라이는 "봄비는 패스트푸드점과 카페에서 거의 모두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내 계량기가 측정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전자기파가 아주 강하게 잡힌다"고 말했다.



(Candidacy)

쉐퍼드대학교는 **ATS** 뿐만 아니라 **WASC** 및 **ACICS** 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고등교육 인증협회(CHEA)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쉐퍼드대학교 학생모집

군 장학금 무상지원 프로그램

연방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 TITLE 4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 Program)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은 **ATS** 정회원 학교로 유명 신학교들로의 편입, 진학, 학점교류 및 동일한 학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통신 과정 개설

KE 동시 통역 강의

※ 유학생의 R1, H1B 비자 및 영주권 취득 자격은 연방정부교육국(CHEA)에서정회원으로 인증된 학교의 학위뿐입니다.

| 과정 | 학점 | 전공 |
|---------------|--------|--|
| 신학학사 (BABS) | 126 학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신학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교육학 <li style="width: 33%;">• 스포츠 미니스트리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상담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경영학 |
| 목회학석사 (M.Div) | 96 학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목회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교육학 <li style="width: 33%;">• 선교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상담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사회복지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경영학 |
| 목회학박사 (D.Min) | 36 학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 목회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사회복지학 <li style="width: 33%;">• 선교학 <li style="width: 33%;">• 목회 상담학 <li style="width: 33%;">• 기독교 교육학 |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원로 학장

저서 ● 제자 입니까
●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 기도, 하나님과의 로맨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저서 ●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능력
● 두 시간의 내적치유 기적

입학문의 | 323.550.8888 Ext.8231 | SEVIS I-20발행

WEBSITE www.shepherduniversity.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넘버 "42"

야구는 못하지만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미국 메이저리그(Major League)에서 한국 열풍을 일으키는 우리나라 선수들 때문에 야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시애틀 매리너스의 10번 이대호, 텍사스 레인저스의 17번 추신수, 볼티모어 오리

올스의 25번 김현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26번 오승환,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27번 강정호, LA 다저스의 39번 류현진,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스의 52번 박병호를 포함해서 총 7명인데, 부상자 명단에 올라간 류현진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소속 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메이저리그에 대한 도전 정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 프로 야구를 평정한 이대호 선수와 오승환 선수는 일본 팀의 거액 연봉 제의를 뿌리치고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류현진, 김현수, 박병호 선수, 그리고 강정호 선수도 꿈을 이루기 위해 평균보다 낮은 연봉을 감수하고 메이저리그에 입성했습니다. 4년 이상을 마이너리그 팀에서 활약한 추신수 선수는 메이저리그로 승격해서 두각을 나타낼 때까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유색 인종 야구 선수들의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백넘버 42번인 제키 로빈슨(Jackie Robinson)입니다. 그는 오

직 야구 실력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종 차별의 벽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지난 봄, 우리교회 여마회 어르신들과 같이 떠난 여행 중에 관광버스 안에서 제키 로빈슨 선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42'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단장이 '돈은 흰색도 아니고 검은 색도 아닌 초록색이다'고 하며 흑인 야구 팬들의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니그로리그(Negro League)에서 뛰고 있었던 제키 로빈슨을 스카우트했습니다. 백인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메이저리그에 최초의 흑인이었던 로빈슨은 '검둥이', '난 니그로가 싫다', '목화 농장으로 돌아가라', '죽일 것이다', '우리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이미 제거했다. 최근

에 한 시체를 강가에서 찾았다' 등 온갖 편견과 인종차별 그리고 협박을 극복하고 신인왕, 타격 왕을 휩쓸고 최우수선수로 뽑혔습니다. 훗날에 그는 미국 야구의 전설적인 선수로 존경을 받게 되고, 그의 백넘버 번호 '42'번은 메이저리그 전 구단에서 영구 결번(Retired)으로 지정되었으며,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며 그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크게 활약하여 야구뿐만 아니라 야구를 통해 얻은 부와 명예를 잘 사용하여 감동을 주는 선구자들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잠비아 고아들을 돕는 LA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Clayton Kershaw)처럼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의 전도사가 되기를, 소말리아 지역의 희귀병 아동들을 돕는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

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처럼 기부의 천사가 되기를, LA 빈민가에 사는 노숙자들을 돕는 LA레이 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와 약 1100명의 불우청소년에게 4년간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Cleveland Cavaliers)의 르브론 제임스(LeBron James)처럼 선행의 스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들의 백넘버(10, 17, 25, 26, 27, 39, 52)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결번되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렛츠 플레이볼!'(Let's Play Ball).

푸 / 른 / 초 / 장

원팔연 목사
(전주 바울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기적이 일어난다. 안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된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 망하는 법이 없다.

다. 늘 입으로 간증하고 싶은 교인들은 순종하는 교인들이다. 반면 믿고 싶은 교인들도 있는데 '못해'인 자들이다. 순종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많다고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고 예배를 나태하게 드러니, 교인들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점점 신앙이 퇴보한다. 인생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이고, 인

는데 장로 때문에 자살하는 목사를 보았다. 은혜 충만한 장로님은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그렇게 좋을 수 없다. 그런데 은혜가 떠난 장로는 목사를 죽이는 것을 많이 보았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니 은혜가 떠난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여호와를 위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인생의 밤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오면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못간다. 예배에 소홀하지 않기를 축원한다. 이만생활이 바쁘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내 삶속에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신앙을 지키라. 그러면 타

않는 사람은 우물을 파다가 바위 같은 장애가 있으면 그만 둔다. 오래 참아야 한다. IMF 때 교회를 건축하면서 너무 힘들어 3번이나 죽을 생각을 했다. 참았더니 오늘의 바울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역을하고 분해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참아야 한다. 인생의 성공은 인내하는 것이고, 인생의 실패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 목사와 장로,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 싸우니 한국교회가 더럽혀지고 무기력해지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된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싸우지 않는다. "너는 살아라, 나는 죽을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살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게" 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교회는 많은데 이제는 복음이 없다고 한다. 서로 싸우고 고소한다. 한국은 요즘 교회의 고소 때문에 변호사들이 흥이 났다고 한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다. 서로 죽기 살기로 사랑해도 모자라는데 왜 싸우는가.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조카에게 양보했는가? 아니다. 안 싸우려고 조카에게 양보했다. 손바닥도 마주치지 소리가 난다. 누가 하나가 양보하거나 저버리면 안싸운다. 물고 뜯고 싸우면 둘 다 망한다. 옆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한다. 아브라함처럼 화평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자.

“선민이여!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시오” (창세기 12장 1-12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킨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진다. 전반기 인생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부름 받은 후반기부터 아브라함은 숨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다. 본문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위대한 5가지 신앙이 있다.

아브라함은 금은보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 받은 그날부터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순종 없는 신앙은 다 헛것이다. 순종의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바란다.

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신앙이 낙후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는 하나님도 떠나고 교인도 떠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가? 성장한 한국교회의 모델을 보니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점점 예배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분간이 안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이다.

이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은 죄로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옛날 어르신들은 싸우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고한경직 목사님이 옛날 목사임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되실 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안 싸우기만 해도 부흥한다"고 했다. 왜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고 부흥이 안되는 줄 아는가? 단 하나,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 때문에 그렇다. 참아야 된다. 욕도, 오설도, 다투어도 다 인내의 신앙을 가졌으며 결국은 성공했다.

우물을 팔 때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같은 조건에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 물이 나오는 사람은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고 변절되지 않는다.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

1. 순종의 신앙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 떠나라고 하시니 떠났고, 이름을 고쳐라고 하시니 고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니 받았다. 그리고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을 바치려고 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 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다.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저는 24살부터 시작하여 45년간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교인들이 있

2. 예배중심의 신앙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중심의 신앙이다. 요즘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그 위기 중 하나는 한국교회가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고 모이기를 파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새벽예배, 주일 낮과 밤 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예배 등을 드렸는데, 요즘 한국교회는 일주일 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여름과 겨울 방학에는 한 달 동안 예배를 한다고 한다. 점점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예배를 없애 버리는

3. 인내의 신앙
히브리서 6:15을 보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내의 신앙으로 감동시켰다. 참으라. 성공한 목사와 실패한 목사는 머리와 학력의 차이가 난다.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끝까지 인내하면 성공한다.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참아야 된다. 욕도, 오설도, 다투어도 다 인내의 신앙을 가졌으며 결국은 성공했다.

4. 화평의 신앙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 안 싸우려고 한 것이다. 화평의 신앙이다. 예수님

5. 주의 종을 정성껏 대접하는 신앙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니 희소식을 주셨다. 아브라함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나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했더니 희소식이 있었다. 주의 종을 정성껏 대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2016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첫날 설교]

담임 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 요건

- 1) 복음주의 보수 장로회 신학교 (M.Div)를 졸업하신 분.
2)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당회원 부목사 포함)되신 분.
3)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4) 연령 45 - 55세.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3) 목회 비전과 소명서 1부.
4) 신학교 졸업증명서.
5) 소속교단 재직증명서 (KPCA 회원이거나 회원 가입이 가능한 분).
6) 목사 안수증.
7) 추천서 (목회자) 2분.
8) 최초 6개월 이내 설교 DVD 2편 (동영상 파일).

3 서류 제출처: Elder Kye Hwang (황계현 장로 - 청빙위원장)
7976 Augusta Ln., Concord, OH 44077
Email : younghlee53@gmail.com

4 제출 기간 : 2016년 7월 30일 까지

- 5 기타: 1) 서류 (Email) 혹은 우편으로 제출 바랍니다.
2) 우편으로 제출 하신 분은 필히 Email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5) 사역하신 교회마다 2분 이상의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전화번호(장로)

2016년 6월 26일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fields: Name, Address, Phone/Fax, and checkboxes for individual or family subscription.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내 딸이 남학생들과 함께 샤워실을 사용하게 된다고?

지난 5월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자로 태어난 남학생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학생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에 들어가도 된다는 법령을 내릴 뿐 아니라 온 공립학교에 "의무화(mandated)" 시켰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14세 된 딸이 PE 수업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싶어 샤워실에 갔을 때 자신을 "여자"라고 하는 남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으며, 샤워를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학생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역시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남자라고 하고 들어가서 함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들과 성도들이 일어나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정부인 민주당에게 "No MORE!" 이라고 외치고 맞서야 할 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서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트랜스젠더 유전자 검사

트랜스젠더들을 대상으로 소위 "트랜스젠더 유전자"의 존재여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유전학적으로 그 어떤 이상현상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는 후자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라 하더라도 성별을 결정짓는 유전자에는 그 어떤 변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여전히 남성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들은 심리적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또 다른 정신

때의 위험성과 그 이후의 후효과(after-effect)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더 혼돈스럽게 될 수도 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고 성전환 수술을 너무 빨리 권면하고 추진한다고 이야기하며, 의사들이 좀더 양심적으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과정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곁과들

연구 자료들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볼 때 전문가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질환과 약물중독의 치료를 위해선 좀더 개선된 의학적 도움과 심리학적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들을 위한 화장실을 짓는 다든가 성전환수술을 받는 것이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라고 전문 심리,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8명의 성별불쾌감 환자들을 대

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학대와 성적체성 혼돈의 관계

또 다른 트랜스젠더 연구조사에 따르면 굉장히 높은 수치의 숫자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41개의 성전환자를 연구한 것에서 나온 바입니다. 아동기에 겪은 트라우마가 성적체성질환, 해리장애 등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연관성을 확증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이미 트랜스젠더로 살았던 사람들이 겪어온 일들과 일치하는 것이 예전 트랜스젠더로 살았던 사람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Ex-transgender에 의하면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트랜스젠더들에겐 아동시절에 겪은 트라우마가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료 전문가들이 조금은 가볍게 여겨도 될 분야는

성별혼란 소아환자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과 발달장애 동시에 겪어 "성전환화장실법안" 아닌 심리질환 인정하고 효과적 치료 제공해야

성전환(트랜스젠더)은 오바마 정부가 이렇게 의무화 해야 할 만큼 시민들과 국가에 건장한 정책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2016년에 출간된 JAMA 소아과 저널지에는 16세와 29세 사이의 여성 트랜스젠더 298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적 진단에 관한 연구결과가 실렸는데 다음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40프로 이상의 참여자들이 정신 질환 또는 약물중독을 겪고 있었으며 5명중 한명이 두 가지이상의 정신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치료제 중독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 불만족에 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진단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증상은 단순히 혈액체취, 뇌검사 또는 DNA 검사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환 결과

2016년에 레바논 쪽에서 참여한 20명의 트랜스젠더들을 조사한 결과 각각의 트랜스젠더 사람들은 모두 평상인들보다 훨씬 높은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들 중 50%가 자살충동이 있다고 했고, 45%가 극심한 여러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엑스-트랜스젠더(Ex-transgender)였던 한 기자의 자신이 성전환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성전환이 얼마나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전환수술까지 하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 조사들에 의하면, 성전환 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성전환을 하려고 할 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과 의사들마저 성전환을 할

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 중 29.6%가 해리장애(다중인격장애)를 겪고 있으며, 45.8%가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21.2%가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5.8%가 아동기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중인격장애가 거의 30%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것이고 우울증이 거의 50%를 맴돌고 있는 이런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반인들과 더 나아가 남녀 혼용으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기숙사까지 혼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동성애/트랜스젠더들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격박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리장애와 성별불쾌감의 차이점을 구별해내는 진단이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이는 그 두 질환의 증상이 아주 닮아있기 때문

어린아이의 성적체성 장애부분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소아과 내분비학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그리고 윤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조사가 이뤄졌는데, 그들 중에는 어린 시절의 치료를 권유 또는 반대하는 양쪽 의견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아의 성적체성 혼란의 많은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일관적인 의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료지침서를 뒷받침 할만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의 치료절차는 사실상 매우 위험하고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로 아이의 사춘기를 억제하고 16세가 되면 반대성별의 호르몬을 주입하는 치료를 권장함으로 그야말로 아이들의 자연적인 성장과 성적체성을 약으로 혼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직장생활을 하지만 요즘 40일간 어떤 기도제목도 가지고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의미와 효능을 알고 싶고 효과적인 금식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나성에서 권명옥 권사

A: 직장생활을 하며 40일간이나 오래 동안 아침 금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하실 것이며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금식을 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공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엘 2:12-13절을 보면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소서 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소서. 그는 은혜로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의 죄를 씻는 대 속죄제일인 7월 10일에 온 국가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금식이 나의 의가 돼선 안돼...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하면 기도 능력 받아

다. 그러면 백성들은 밖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금식은 기도도 집중하는 데 좋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데 사실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금식하면 이런 시간의 허비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을 금식하십시오 우리에게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점차 중요한 공생애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장 깊고도 풍요로운 교제를 가능케 합니다. 금식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행하는 금식은 개인의 부흥을 가져오며 우리의 기도도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금식은 몸을 쫓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식하면 모든 질병의 면역성이 높아지고 체질 개선이 됩니다. 동물들은 병이 나면 반드시 먹는 일을 중단하고 상처가 나면 혀로 핏을 것이 유일의 치료법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주일에 이레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세례요한과 그 제자들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시지는 않습니다. 금식 자체가 조건부가 되어 하나님과 흥정할 수는 없습니다. 웨슬리 듀엘은 그의 저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금식은 당신의 영적인 굶주림이 너무 깊기 때문에 당신의 일시적인 육체의 필요까지도 제쳐놓고 당신 자신을 기도와 말씀에 몰두하기 때문에 음식을 입에 대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금식은 개인에게 부흥을 가져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면에서 금식기도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 주의 할 것은 금식이 하나의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되며 음식을 굶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집중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기도도 하고 조용히 묵상으로도 기도하는 것을 겸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아침 금식을 한다면 교회의 새벽기도에 참여하면 더욱 영적 힘을 얻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 (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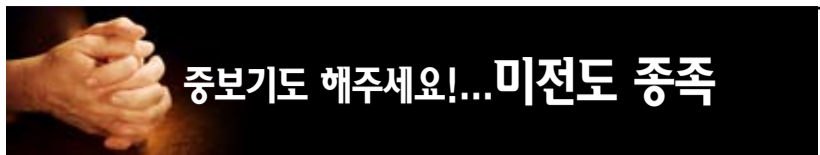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서부 아프리카의 로비-왈라(Lobi-Wala)



로비-왈라족은 가나,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의 나라들이 접하는 블랙볼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 두 가지 별도의 집단으로 나뉘는데, 그들 언어의 이름을 딴 로비족과 거주지역인 와의 이름을 딴 왈라족이다. 로비와 왈라족은 언어나 위치, 역사, 문화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대개 그들을 하나의 집단인 로비-왈라족으로 묶어버린다. 두 부족은

구르 언어의 방언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니제르-콩고어계에 속한다. 1600년대에 왈라족은 맘프루시에서 살았으며 다카리족과 로비족을 통치했으며, 가나 북서부의 와에 정착했다. 1700년대 후반에 로비족은 그 지역 큰 부족의 압박을 받아 가나에서 현재 위치로 이주했다. 로비-왈라족은 더 나은 땅과 도시의 일거리를 찾아 지금도 계속해서 이주하고 있다. 다른 종족으로부터 계속되는 침략과 공격 때문에 로비-왈라족은 그동안의 독특한 요소형의 가옥과 독화살무기를 개발해냈다. 그들은 아직도 공격적인 민족이다.

삶의 모습 로비-왈라족은 적당한 농지를 찾아 계속 이주하는 농부들이다. 그들은 조, 수수, 옥수수 등의 곡물과 양, 스카워, 콩, 후추, 약간의 쌀 등을 재배하며, 지역시장에서 곡물, 특히 수수로 만든 맥주를 판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소, 양, 염소, 닭도 기른다. 임금을 받는 일거리를 찾아 가나 남부나 코트디부아르로 이주하기도 한다. 농지에서 남자들은 밭의 일대부분을 하지만, 여자들도 파종과 수확을 돕는다. 여자들은 자신의 채소밭을 경작하며 숲에서 나는 산물을 채집하고 뿔나무를 모으고 물을 길는다. 또 식사 준비하고 맥주를 만들기도 한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함께 집을 짓는다. 로비-왈라족은 여러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촌락에서 사는데, 농사를 하고 가축들을 기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착지는 넓게 퍼져있다. 그리고 관목을 키우는 보

다 더 넓은 땅은 촌락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보며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물린다. 아이들이 걷게 되면, 비로소 인간이 된 것으로 간주되며 적당한 무덤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젖먹이는 언니가 돌보며 어린 소녀들은 마을 주변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때로는 어머니를 도와 물을 길거나 곡식을 뿜는다. 또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를 도와 가축을 몰고 다닌다. 그 지역의 다른 부족의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로비의 소녀들도 아버지와 오빠를 도와 가축 치는 일을 하기도 한다. 가정의 신상 앞에서 다양한 의식이 매년 행해진다. 예컨대, 농사철이 끝날 무렵이면, 춤을 추며 풍작을 축하하며 출산이나 결혼, 장례가 있을 때도 의식이 거행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식은 비밀 사교모임에 입회할 때 이뤄진다. 왈라족은 장례식이나 무도회 때

실로폰을 전문적으로 잘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로비족은 가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종족 다 모두 조상의 사당과 동물, 신상이나 의자를 조각해 만든다. 신앙 로비족 대다수는 전통적인 애니미즘 신앙을 따르지만, 왈라족 대다수는 그 지역의 지배적 종교인 이슬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개종'은 디올라족의 무슬림 상인들이 왈라주에 편입돼 그들의 만테어 대신 왈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던 18세기에 일어났다. 디올라족 무슬림들은 이어 왈라족의 일부가 됐으며 그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했다. 무슬림이 아닌 왈라족은 로비족과 아주 유사한 신앙과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 부족들의 애니미즘 신앙은 죽은 조상과 자연의 사물들을 중심으로 행해지며 여기에

경배를 드린다. 대지는 공동체를 지켜보고 토양에 비옥함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조상의 영혼은 자손들을 지켜보고 가정문제에 개입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 조상의 영혼에 음식을 바치고 잘 돌봐야 한다고 믿는다. 영혼을 잘 달래지 않게 되면 굶주리고 불만을 가지고 악령으로 변하게 된다고 한다. 애니미즘 숭배자들은 또 동물과 사물에 있는 영혼을 잡을 수 있으며 그런 후 그들을 기쁘게 사냥을 세운다고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로비-왈라족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몇 있지만 기독교인은 극소수다. 로비-왈라족에게 효과적이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선교의 노력과 추가적인 사역자들, 기독교방송, 복음화 문서자료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공화당, 성경을 공립학교 선택과목으로

미국 공화당이 지난 18일 공개한 새 정책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결혼·가족 개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공립학교에서 성경 강독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북핵 문제와 보호무역 방침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출기차게 강조했던 '이민자 통제 강화' '이슬람국가(IS) 척결' 등이 담겼다.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66쪽 분량의 정책강령을 통해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노동자의 취업허가 및 신분을 입증하는 전자 프로그램을 전국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발표한 정책강령에는 그동안 사용했던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s)'라는 표현 대신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를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북스는 지적했다. 공화당은 총기와 관련하여도 "총기 소유 및 지참은 헌법보다 앞서는 자연적 권리이자 천부적 권리"라고 규정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해 "관람석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며 "그 결과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이란, 그리고 이들의 후원세력을 제외한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IS와 헤즈볼라 등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핵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이란 제재 해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공화당은 또 친(親)이스라엘 노선 강화를 천명했다. 정책강령에 '예루살렘은 분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적시하고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예루살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무력점거했지만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다. 공화당의 강령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배제한 것이다.

이슬람권에서도 '포켓몬 고' 화제

전세계를 강타한 닌텐도의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공식 서비스 지역이 아닌 중동에도 화제다. 이 지역 정부와 종교기관은 접속지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게임을 즐기는 젊은이가 늘어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터키 앙카라 일부 지역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게이머가 만나 함께 포켓몬을 사냥하려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터키 언론들이 15일 전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는 경험담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교계는 벌써부터 포켓몬 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집트의 수니파 최고 종교기관 알야즈하르의 압바스 슈만 부총장은 독일 dpa 통신과 인터뷰에서 "포켓몬 고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금지된다"고 해석했다. 이슬람에서 게임은 술과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포켓몬 고도 따라서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터키 이맘의 단체인 디아네트-센의 메흐멧 바이라크투타르 회장도 터키 일간 하베르투르크와 인터뷰에서 "포켓몬 고 게임이 예배장소인 모스크의 의미와 중요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금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쿠웨이트 내무부는 15일 "포켓몬 고를 하다가 관공

서나 굳기지, 보안 시설의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며 "모스크, 쇼핑몰, 유전 시설에서 포켓몬 캐릭터를 쫓아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통신규제청도 이날 낸 성명에서 "지리 정보를 이용하는 포켓몬 고는 미행이나 공격하려는 장소에 다른 사람을 유도하는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켓몬 고와 같은 게임은 사용자 위치가 추적당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해킹하면 사생활 정보가 범죄자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이런 게임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러닝메이트에 펜스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마이크 펜스(57·사진)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공식 발표했다 CNN방송이 15일 보도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려다 프랑스 테러 때문에 회견을 취소하고 트위터를 통해 부통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펜스 주지사는 공화당을 대표하는 강경 보수주의자로 작은정부와 감세를 주창하는 '티파티' 소속이다. 일반 대중에는 낙태와 동성 결혼 등에 반대하는 독실한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이미지가 강하다. 아일랜드계 이민자 후손으로 인디애나주 롤링버스에서 태어나 하노버 칼리지와 인디애나 대학을 나왔다. 정계 입문 전인 1994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마이크 펜스 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펜스 주지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인디애나 6구역 하원의원을 지냈고 2012년 중간선거에서 인디애나 주지사에 당선됐다.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펜스 주지사가 트럼프와 공화당 당료 및 주류 보수층 인사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의원들은 그를 통상적인 보수 이념을 내세우는 보통의 정치인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펜스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가 강력히 비판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원의원 시절에는 이라크 침공에 찬성표를 던졌고, 지난겨울에는 무슬림의 이민을 금지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후보와는 향후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의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나는 펜스 주지사의 열렬한 팬이며 우리는 친구 사이"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다만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통령 후보 내정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겼다. 대선캠프 관계자들도 "트럼프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의회에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佛 니스서 신종 '트럭 테러' ... 최소 84명 사망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14일 밤 대규모 테러가 발생해 최소 84명이 숨지면서 유럽 대륙이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참사는 여름철을 맞아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민간인을 노린 '소프트 타겟(Soft target)' 테러로 유럽 지역 휴가지에 테러 비상이 걸렸다. 특히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대형 트럭을 이용한 신종 테러라는 점에서 유사한 테러가 잇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극단주의 테러단체는 최근 프랑스, 터키, 벨기에 등의 여행지에서 테러를 자주 저질러 왔다. AP통신과 프랑스24,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테러는 오후 10시30분쯤 니스의 유명한 산책로인 프롬나

드 데 장글레에서 발생했다.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바스티유데이)을 맞아 불꽃놀이가 끝난 직후 테러범이 대형 로리 트럭을 몰고 수천명이 거닐던 산책로를 덮쳤다. 범인은 곳곳에서 총도 쏘았다. 이로 인해 최소 84명이 숨졌으며 202명이 부상했다. 특히 이 가운데 5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25명이 혼수상태라고 수사당국은 발표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최소 10명 숨졌으며 50명이 입원했다.



테러범은 프랑스 국적의 튀니지계 31세 남성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사살되기 전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져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IS 추종자들은 사건 뒤 이번 테러를 축하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렸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여름철 해변이 테러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 유럽 각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고, 경계도 허술해 테러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에도 유럽인들이 휴가를 즐기던 튀니지의 휴양지 수스 해변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해 38명이 숨졌다.

올라프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자유를 상징하는 대혁명 기념일에 테러를 당했다"면서 "하지만 테러에 굴복하지 않았다"면서 단결을 호소했다. 프랑스는 오는 26일 종료될 예정이던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했으며 16일부터 3일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미국인 10명 중 6명, 성 정체성 문제에 관대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성 정체성 문제에 관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그러나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성 정체성 문제와 실제로 성전환을 하는 문제는 도덕적 평가 면에서 차이가 다소 있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 결과 먼저, 출생 시 성(Sex)과 다른 성(Gender)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중 35%였으며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람은 45%였다. 이 문제가 '도덕적 이슈가 아니다'라고 본 사람은 14%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6%였다. 그러나 단순히 성 정체성 인식의 문제를 넘어 실제로 성전환을 위한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에 대한 응답은 그 결과가 약간 달랐다. 이런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응답은 4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 '도덕적 이슈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1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였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성 정체성을 변경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은 35%이지만 실제로 성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42%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또 반대로 성 정체성 변경이 잘못이 아니라면 경우는 45%였지만 실제로 성전환 문제로 가면 그 수치가 줄어 43%가 잘못이 아니라 됐다. 이 결과에 관해 스톱 맥코넬 디렉터는 "미국인 다수는 창조주께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성별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관점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성형수술, 치아 미백, 머리카락 염색, 문신을 하듯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관한 것들을 바꾼다. 많은 미국인들이 성별도 이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종교별로 볼 때, 복음주의자의 경우는 54%가 성 정체성 변경을 도덕적 잘못이라고 한 반면, 가톨릭 신자는 26%에 그쳤다. 이슬람과 유대교 등 비기독교 종교인의 35%, 무종교인의 20%가 동일한 대답을 했다.

마찬가지로 실제 성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 수치가 높았다. 복음주의자의 61%, 가톨릭의 29%, 비기독교 종교인의 41%, 무종교인의 21%가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를 '도덕적으로 잘못'이라 봤다. 맥코넬 디렉터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명백한 소수자"라고 전했다. 이 조사는 2015년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화 설문으로 이뤄졌다. 표본의 신뢰도는 95%이며 표본 오차는 ±3.6%다. '두 목회자의 딸, 유럽 미래 짝지어졌다' '성공회 목사의 딸과 루터교 목사의 딸이 유럽의 미래를 짝지어졌다.' 13일 영국 총리로 취임한 테레사 메이(59)와 앙겔라 메르켈(61) 독일 총리가 짝지어진 역사적 과업과 그들의 신앙적 배경을 요약한 표현이다. 이들 총리는 이른바 'PK(Pastor's Kid)', 목회자의 자녀로서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이들 여성 지도자는 모두 교회 성직자들의 딸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보도하고, "루터교 목회자의 아들이었으나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던 니체 같은 '반역 사레'도 있지만 목회자 자녀가 정치가일 때는 특별한 무늬가 있다. 세심하며 떠벌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특징을 갖는다. 메이 총리는 이러한 무늬를 비롯해, '브렉시트'라는 괴물을 정면으로 맞서 잘 조준된 기도까지 모든 것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메이 총리는 런던 남동쪽 이스트본 석세스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주 주의 시골 마을인 윌트리에서 자랐다. 부친은 영국성공회의 허버트 브레이셔 목사로, 교구를 담당하면서 이스트본병원의 원목으로 활동했다. 메이 총리는 목회자의 딸로서 대중 앞에 항상 노출돼 있다. 부친은 엄격한 분위기 속에 신앙교육을 시켰으며 도덕적 나침반으로서 최고도적 신앙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의 지인들은 부친의 신앙적 영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옥스퍼드대(지리학) 졸업 후 1977년 영국중앙은행, 85년부터 영국지급관리협회에 근무하면서 중산층으로 살았지만 삶은 녹록치 않았다. 25세 때인 81년, 부친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고 모친도 이듬해 다발성 경화증으로 사망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었다. 이러한 고난은 메이 총리를 내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전 총리와는 다른 정치가의 면모를 갖게 했다고 영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놓고 메이 총리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메르켈 총리의 부친은 루터교회 목회자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다. 함부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한 그는 고향에서 목회하기 위해 옛 동독 브란덴부르크 주의 작은 마을인 템플린으로 이주했다. 카스너 목사는 템플린의 목회자 교육기관인 설교 아카데미 원장으로도 재직했는데, 목사관에는 유명 신학자들의 왕래가 잦았고 다양한 신학서적들이 있었다. 어린 메르켈은 이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며 부친으로부터 신앙과 함께 이성적이며 냉철한 면을 많이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메르켈은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기술고교에 진학했고, 라이프치히대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다. 석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지내다 독일 통일 후엔 기독교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2001년 기독교민주당 최초의 여성직장을 맡았고, 헬무트 콜 총리의 총애 속에 여성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뒤 2005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다. 정치인으로서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편이다. 이는 메이 총리도 비슷하다. 그러나 정책 수행에 있어서 둘 다 신중한 실용주의 노선을 구가했다. 이는 기독교적 신앙과 서민적 출신 배경이 빚어낸 경륜 덕일 수 있다. 메이 총리가 최장수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메르켈 총리는 현실주의자이며 검소하고 소탈하다. 공약도 묵묵히 추진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민문제와 안보에 대해서 강경한 편이지만, 인신매매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여왔다. 메이 총리는 취임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영국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끄는 정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영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브렉시트 결정 직후인 지난달 24일 영국성공회 수장들이 주문한 통합의 요청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6. 현 순

현 순(玄榘)은 1878년 3월 28일 서울 옥인동에 사는 역관 가문에서 태어났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의병활동에 가담했던 그는 이듬해 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육영공원에 입학하여 G. W. 길모어, D. A. 벙커, H. B. 헬버트 등의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영어와 기독교를 학습했다. 그런데 1897년 육영학원은 폐교되었다. 그즈음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이 구속되는 사건에 그의 아버지 현재창도 연행되었는데 그도 독립협회 회원이었다. 1899년 현 순은 일본 동경에 유학하여 근대학문을 공부하던 중 1901년 친구 심의성의 전도로 침례교 선교사인 C. H. D. 피쉬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현 순 목사

하와이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귀국한 현 순은 신문광고를 통해 동서개발회사의 통역으로 취직했다. 그는 장경화 등 본 회사의 한인 직원의 권유로 용동(나리)교회에 등록한다. 1903년 3월 현 순은 두 번째 이민단을 인솔하고 그의 부인 이청과 함께 하와이로 이주한다. 그는 오하우섬 가후우와 농장과 와이알루아 농장에서 환란상제와 고

락동고를 목격한 동회를 조직하고, 야간학교를 세워 영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홍치범, 임정수 등과 교회를 개척했다.

감리교는 1905년 조합교회와의 협약을 통해 한인교회는 감리교가

관할기로 한 후 감리사 피어슨 목사의 지도하에 호놀룰루한인감리교회 설립에 현 순이 참여했다. 1906년 제 1회 하와이 연회에서 그는 카와이섬의 '리후에'와 '하나마루' 등의 지역 한인교역자로 파송된다. 한편 그는 와이드만 감리사의 지방회 목사 교육반에 등록하고 홍치범 등과 공부했다. 그는 한인 이주자를 돕고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당을 건축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 지주의 도움으로 자녀들을 위한 학교와 기숙사도 건립했다. 한 달 사례비가 30불이었는데 한인 노동자의 14불에 비하면 많았지만 가족이 달린 기계는 힘들었는데 와이드만 감리사의 보고대로 현 순은 1907년 가정 사정으로 돌연 귀국하게 된다.

서울

평양 대부흥으로 전국 교회가 비약하던 1907년, 현 순은 배재학당에서 총교사로 재직하면서 정동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기도 하

었다. 그는 1908년 집사목사로 안수 받은 후 정동교회 부목사가 되어 최병헌 담임목사를 돕고, 주일학교를 창설했다. 그 해에 하와이 한인 이민생활을 쓴 '포화유담기'를 간행한다.

1909년 제 1회 협성신학교를 졸업하면서 현 순은 장로목사가 되었다. 서울 서부지역 전도목사로 임명받아 1911년 경성, 인천, 해주에서의 백만 전도운동에서 많은 실적을 북음으로 인도했다. 상동교회 전담기 목사가 일본이 낯조한 '사내 총독 모살 미수사건'(일명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는 중 건강 악화로 연회는 1911년 현 순을 상동교회 부목사로 임명했다. 그 해에 강리취집을 출간한다. 정동교회의 최병헌이 인천지방 감리사로 임명되던 1914년, 현 순은 본 교회 제5대 목사로 부임했다. 지력으로 섬겼지만 감동을 받지 않자 영력을 받기 위해 그는 매일 새벽 남산에 올라가 소나무 사원에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예배당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주일학교운동에 관여했다. 이런 인연으로 그는 1915년 미국감리교 조선연회 전국주일학교 총무로 취임한다. 그가 1919년 상해로 망명하기까지 5



대한민국임시정부국무원. 현 순(앞줄 우측), 안창호(앞줄 중앙)

년간 주일학교운동에 몸을 담으면서, 1916년 안경록 목사의 강릉교회에 주일학교를 조직하면서 불신자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조직에 힘썼다. 1918년에는 현 순은 장감연합공의회에 미국 북감리교 대

상해

현 순은 강원도 전도여행을 떠난다며 1919년 3월 1일 상해로 가서 이광수와 함께 3.1운동 독립선언문을 상해와 미국 언론에 기고하여 외국에 알렸다. 3.1운동 직후 그는 독립임시사무소 총무, 임시의정원 외무부장, 임시정부 외무위원, 임시의정원 외무부위원, 임시정부 내무부장 등을 역임하며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 분야를 맡았다. 그리고 이동휘가 이끄는 블라디보스톡의 대한인국민회의를 상해 임시정부로 규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그의 혁혁한 공에 비하면 "대한적십자회" 창설은 건줄 바가 아니다.

1920년 미국에서 구미위원회 부장사리였던 그는 임시정부, 미국정

인쇄실 등 3개의 부속건물을 완성했다. 1924년 교인 수는 130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 수는 200명이었으며 교사 수는 12명이었다. 1926년에는 교인수가 164명으로 약간 성장했고, 주일학교 학생 수도 215명으로 약간 성장했는데 교사 수는 1명이 줄었다.

이승만파와 박용만파로 나뉘어 반복하는 와중에서 1926년 현 순은 카우아이섬의 리후교회와 엘레엘레교회 등에서 오직 선교에 주력했다. 1934년 카우아이에서 목회하던 때의 "물질문명과 종교"라는 그의 설교가 남아있다. 하와이 한인 이민자 중에 정신병자가 많다면 현대 문명의 비루한 기형적 생활에서 눈을 뜨고, 삶의 인도자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역설했다. 일찍이 관심을 표명한 만주선교에 신경을 쓰면서 1940년까지 15년간 본 교회를 섬겼다.

교회 목회에 전념하면서도 현 순은 1924년에 한인 신문 '코리아 크리스트 에드보케이트'를 김이제 목

정동교회 오순절 시대 열어...하와이서 목회, 주일학교 주력 의병활동부터 독립운동까지 구국에 큰 관심...국립묘지 안치

에서 기도하기를 3개월이나 계속했고, 그해 11월 1일부터 효천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정동교회의 오순절 시대를 열었다.

1911년 재한 북음주의선교회공의회 안에 주일학교 위원회가 구성될 때 미국 북감리교 대표의 한



초기 하와이감리교회 전도사 현순(뒷줄 오른쪽)(1904년)

표를 참여했다.

현 순은 1919년 초 "칼바위"라는 설교에서 경기도 여주의 칼바위를 견주어 논한 성경의 네 가지 특징은 "성경의 기사는 탁월하여 모든 서적 위에 우뚝 솟아 있고, 성경은 사조의 연마를 받아 그 기세가 더욱 예리하며, 성경이 사조의 급격한 이단을 격퇴하고, 성경은 시대사조에 매이지 않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한 것이다.

일본의 고문으로 전락기 목사가 세상을 떠나는데 현 순은 자주독립운동에 눈을 뜬다. 1919년 2월 세브란스 병원 구내의 이갑성의 방에서 그는 감리교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장감 대표 7명

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하는데 참여했다. 이날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춘 그가 각국과의 연락사무를 위해 상해주재원에 임명되는데 이후 송일상으로 통했을 것이다.

미국

1920년 현 순은 김규식에 이어 구미위원부의 임시위원장이 되었다. 1921년 4월 그가 워싱턴에 대한인국민시정부 주미대사관을 설치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받은 후 목회로 돌아선다. 1924년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그는 이듬해까지 약 2년간 사역했다. 그는 포트 스트리트의 새 예배당에 남학생 기숙사와 취사장,



현순 목사와 카우아이 섬의 엘레엘레교회(1932년)

동작동 국립묘지 현 순 목사의 묘

사와 함께 담당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정 후원을 목적으로 그는 카우아이 섬의 동료들을 규합해 1931년에 "단합회"를 조직할 때 주동했다. 1934년 이후 그는 임시정부의 재원 조달을 위한 하와이 모금운동 책임자로, 1937년에는 하와이 선유위원으로 임명받아 임시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 순은 1940년에 목회를 은퇴한 후 1968년 7월 11일에 나성에 소천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1963년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현 순에게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을 추서했다. 그의 유해는 1975년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의 명예를 세우주었다.

damien.sohn@gmail.com

그게 그런 뜻이었어?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42)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성경에 나오는 종은 종이 아니라 '노예'이다

노예들이 팔려가는 섬이 있다. 그 섬에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평생 그 섬에서 노예처럼 죽도록 일만 하나다가 죽은 것이다. 그 섬에 노예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것을 알게 된 두 청년(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섬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 섬에는 노예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다. 노예들을 구하기 위해 노예가 되었다.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데, 한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로 살아서 나오지 나오지 못하는데,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하다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데, 그들은 노예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노예가 된 것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물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6-8).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종'은 우리가 아는 그런 종이 아니라(servant)이나 둘로스(doulos)로서 노예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

이사야 53장을 읽노라면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누군가가 중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예언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다. 거기에 나오는 '그'를 '예수'로 넣어 읽어보라.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

이사야 53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야는 '고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사야 52장에서도 그 메시야를 종이라고 칭하고 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사52:13).

여기에 나오는 종은 '에베드'(ebed)라는 히브리어로, 노예를 뜻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야는 고난 받는 노예라는 것이다. 노예처럼 멸시 천대의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이다. 노예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침 뱉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된 것도 없는데, 노예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변명이나 할거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런 수난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종은 모두 노예를 일컫는다. 종과 노예는 전혀 다르다. 고대에는 빛을 갖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갔다. 빛을 갖을 때까지 종살이를 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빛을 다 갖으면 자유인이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 아니다. 주인은 종에 대해 생사박탈권 같은 것은 가지지 않았다. 종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예는 노예라는 신분을 갖고 태어난다.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아무런 자유도 없다.

노예와 종은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예를 종이라고 번역해 놓았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이렇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연스럽게 들린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까?

(9면으로 계속)

| | | | | | | |
|---|---|---|--|--|--|---|
|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p> | | | | | | |
|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후 1:45 EW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택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공공예배: 오전 10:00 공공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대학원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평일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p> |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 <p>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
|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lias Ave, El Paso, TX 79904</p> |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 <p>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EM)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 <p>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7시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53)536-6675, (253)889-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org</p> |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p> |



성경도 신앙 (11)

청교도들의 설교에 대한 안목(하-2)

5) 겸손한 경청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교제 (spiritual communion)의 수단으로 에임스는 두 가지를 일컫는데, 말씀의 들음과 기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은 아니다, 독서 등 여타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다. 말씀의 들음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의지를 내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에임스는 그의 책, 청교도 신학의 정수(Marrow)에서 말씀을 받음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음의 집중과 의지의 집약(in-

tenation of will)이라고 표현한다 (Marrow of Puritan Theology). '마음의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열망하며, '의지의 집약'이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활용함을 말한다. 곧 시편 119:106의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그 말씀의 바른 들음은, 내면적 행위가 따라오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신실한 신앙적 순종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Marrow, 255). 참으로 경건하게 되려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깨어나야 하는데,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에 의해 감화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Marrow, 255).

이 신앙에 의해 우리는 말씀에 매달리게 되고, 그 말씀 스스로 우

리에게 매달리며 구원으로 접붙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으로 먼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영광을 돌리며, 다음으로 말씀의 들음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훈련이 되는 데, 이 자체로 바른 예배가 구현되기 때문이다(Marrow, 256).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에 있어 참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어쩌다 하나님 대신 인간을 예배하지 않도록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서는 안 된다.

에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hearing of the word of God)에 반대되는 태도는 첫째 교만(pride)인데 겸손(humility), 순종(observance), 순복(obedience)과 반대되며 그 대신 인간의 의지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교만은 "모든 죄들의 원인"으로, 교만만이 유일하게 말씀의 권위를 경멸적으로 내팽개치기 때문이다(256).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신들을 구하고 이들을 복종하는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이다(Marrow, 257).

마지막으로 에임스는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청중과 기도는 구별되는데, 기도는 우리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Marrow, 259) 그런데 그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 세속적 의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언가를 얻으려는 갈망,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구하는 의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소원(desire)을 제출하고 가져다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제시는 복종적이고 겸손해야 한다."(Marrow, 260)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7. 퍼킨스와 에임스의 설교론 비교

원종천박사는 "주도홍 박사의 '청교도주의의 설교 이해'에 대한 논평"에서 에임스와 퍼킨스의 설교이해를 아래와 같이 피력하고 있다. 두 사람이 처한 상이한 역사상황이 퍼킨스와 에임스의 설교론이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청교도 설교자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며 생존의 위협까지를 감수해야 했던 성도들에게 신앙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애정적 교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청교도의 설교

퍼킨스의 설교자론은 이사가가 추구했던 성령이 도우시는 '학자의 혀'를 갖는 설교자라면, 에임스의 설교자론은 성도들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일꾼(ministry)으로서의 위치가 다르다. 퍼킨스는 교리를 우선시 하면서, 그 교리를 통한 성경이해를 제시하는데 이는 당시 어려운 신·구교 분열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제자 에임스에게서는 이런 점이 다르다. 에임스는 먼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후 거기로부터 설교에 필요한 교리를 추출할 것을 말하고 있다.

에임스와 퍼킨스는 설교자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하며, 목사는 경건생활과 겸손으로 설교가 인간의 일로 잘못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설교자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지만, 그 어느 때나 그 학문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데, 설교는 결코 인간의 기술 내지는 인간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에임스의 설교론에서 요구되는 것은 수사학이 아닌 순수한 단순성(the naked simplicity)이며,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가식(affectation)이다.

퍼킨스와 함께 에임스는 설교 적용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의 설교 적용은 예리하며 분석적이며 실질적이고 목회적이다. 그럼에도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퍼킨스가 율법적 적용과 복음적 적용을 나누며, 설교자 중심의 적용이라면, 에임스는 말씀을 듣는 성도 중심의 복음적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퍼킨스가 가져오는 성령이 가져다주는 '학자의 혀' 천사론은 설교자를 위로하고 돕는 자이다. 그 대신 에임스는 설교자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퍼킨스의 설교론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설교자를 기쁘게 도와주는 천사론과 설교자를 최고로 대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개혁안이다.

5. 나가는 말

16·17세기 주의 몸 된 교회의 신실한 종이었던 퍼킨스와 에임스의 설교론은 오늘 21세기 한인 교회들에게 귀한 교훈과 경종을 준다.

(9면으로 계속)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관계 맺기의 비밀로 풀어내는 가정의 벽

한 연구소가 발표한 '어린이 생활실태 보고서'를 보면 초등학교생들의 절반 이상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겨우 30분 미만이라고 한다. 열 명 가운데 한명은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75.6%의 부부가 하루에 한 시간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화를 전혀 하지 않거나 30분 미만인 부부는 30.9%에 달했다. 이처럼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부부의 경우 15년 이내에 이혼할 확률이 94%나 된다는 통계도 있어서 부부의 대화부족은 그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가정들이 가족과 선물을 나누고 여행을 하는 모습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화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관계 맺기의 비밀-TAPE 요법'을 적용해 볼 것을 권한다.

TAPE 요법은 대화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인들을 위해 필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4단계의 대화법이다. 1단계는 '감사하기(Thank you)'이다.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오해와 선입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게 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용서 구하기(Apologize)'인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을 표현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요청하기(Please)'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요청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내 마음을 표현하기(Express)'이다. 거짓 없이 감정을 표현하되 서운한 감정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친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실제로 'TAPE 요법' 덕분에 관계를 회복한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 사례는 이 대화방법을 활용하여 이혼의 위기를 극복해 낸 한 부부의 이야기이다. 아내는 결혼 후 남편과 갈등을 겪으면서 마치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2주 후에 혼자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선포했다. 아내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남편으로부터 '내가 잘못했다'는 사과만큼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로부터 사과하라는 소리를 듣자 남편은 도리어 "내가 사과해야지"라며 화를 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이렇게 악화될 대로 악화될 상황에서 아내가 부모성품대화학교에 참여했다. 그때 필자가 아내에게 권유한 것이 바로 'TAPE 요법'이었다. 나는 4단계 순서대로 남편과 다시 이야기 해 볼 것을 권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계속 권했더니 용기를 냈다.

아내는 남편과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키 큰 당신과 이렇게 걸으면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좋아. 참 감사했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당신에게 이런 말 한 번도 안했네. 정말 미안해" 아내의 말에 남편은 당황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사실 내가 당신한테 잘한 게 없잖아, 미안해."

아내로서는 'TAPE 요법' 중 '감사하기'와 '용서구하기'까지 두 단계만 거쳤을 뿐인데 그토록 원한 남편의 사과를 받은 셈이었다. 그 날 이후 부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 부부는 지금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

다음은 깨져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경우이다. 이 가정의 경우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관계가 깨져 있었다. 특히 첫째아이는 불안장애에다 틱 장애까지 있었다. 엄마가 아이들을 너무 엄격하게 양육했고 아내는 무관심했다. 엄마는 여러 상담기관을 찾아가 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 필자가 진행하는 성품 교육에 참여했다. 그리고 'TAPE 요법'을 배우고 이를 적용하게 됐다.

엄마는 아이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그동안 엄격하게 대한 것을 사과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요청했으며 부드럽게 마음을 표현했다. 함께 교육을 받은 아빠도 무관심했던 걸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것을 자주 표현했다. 그러자 관계가 회복되면서 첫째의 틱 장애도 개선됐다. 아이는 학업에 집중하게 되자 잘 웃고 밝게 변했다.

행복한 대화의 습관을 키워보자 이보다 더 기억에 남는 선물은 없을 것이다. 오늘 당장 시간을 내어 '미안하다', '감사해'하고 먼저 말을 건네 보면 어떨까.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목회자의 최고표준 예수그리스도’ 출간 이정근 목사 새 책 소개 기자간담회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그리스도’의 저자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가 18일 11시 30분 JJ 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저서를 소개했다.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담임)의 기도회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이정근 목사의 인사말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함생신학, 함생목회, 함생사상으로 종합했다”고 말문을 여는 이정근 목사는 “한국 기독교 역사는 131년 차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그리스도를 타이틀로 책을 쓴 사람이 없었다. 우리의 최고의 표준은 예수그리스도다. 예수그리스도 중심의 목회를 해야 한다”며 책의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했다.

이정근 목사는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 있는 신학’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신학대학원과 목회현장을 경험했다. 신학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있고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크다. 하지만 그래도 목회현장에서 신학을 했기에 공리공론에 빠지는 사변적 신학에 매몰되지 않았고 신학과는 아무 관계없이 단순한 체험이나 자기의 상식으로만 목회하지 않았다. 신학을 깊이 연구한 뒤에는 상식으로 목회하는 길을 택했다. 이론적 체계적 신학과 단편적 상식이나 체험에서 얻은 지혜가 함생하는 목회다. 이 책 전체가 한 체계아래 이뤄졌고 특히 부록에 담은 ‘목회금언’은 단편적 상식”이라고 소개했다.

총 77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본서의 특징은 무엇보다 함생주의(成生主義)라는 용어다. 함생은 ‘공생’이나 ‘상생’(symbiosis)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고 말하며 함생주의는 목회와 신학에만 쓰이는 전문적 용어가 아니라 함생사상이라는 인류의 사상과 문명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자는 “다양한 일치”(Diversity in unity)라는 시각을 적었다. 저자 자신이 평생도로서 교회 생활, 교역자로서의 생활, 미국과 한국의 생활, 아시아적 전통과 서구적 문화체험, 세속 직장과 목회활동, 보수/복음주의 신학교육과 진보/자유주의 신학교육, 웨슬리신학과 칼빈신학 비교연구

등 다양한 직업과 학문, 목회적 관점에서 경험한 것을 수록했다.

또 목회의 초점은 바로 구원론, 그것도 개인 영혼 구원론이 일차적이고 사회구원론 혹은 하나님 나라 도래 곧 사랑나라 건설이 궁극적 목표라고 서술해 놓았으며 이것이 함하여 함생목회를 이루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 주 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목회자의 최고 표준으로 모시고 목회했던 몸부림들을 상세히 수록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집이라는 삼위일체적 이해에 더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인간 개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참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곧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며 미래지향적 목회론을 함생목회적 시각에서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본서는 1부 ‘목회 있는 신학, 신학 있는 목회(함생목회론의 3부) 2부 예수님처럼 목회하기, 3부 건강한 목회자-건강한 교회로 나누어 총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 이정근 목사는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수석 입학해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임 받았으며 ‘목회자가 되어 한다’는 신비한 음성을 체험하고 주의 종의 길을 선택, 서울신학대학교와 미국 애즈베리신학대학원, 조지팩스 신학대학원, 남침례신학대학원, 풀러신학대학원,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유니온교회 담임, 미성대학교 명예총장, 풀러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웨퍼드신학대학원 강사, 조각글 작가, 수필가로 활동했으며 일간지와 크리스천 매체를 통해 글목회도 겸해왔다.

또한 ‘코리안의 노래’, ‘성결과 사중복음의 노래’ 등 13곡을 작사했으며 많은 저서가 있으며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그리스도’”는 30번째 출간된 책이다.

본서의 구입은 미주 조이서저(213-380-8793)에서 할 수 있으며 저자와의 연락은 leeunion@hot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30번째 저서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정근 목사



그레임시먼대학교의 ATS가입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교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그레임시먼대학교 ATS 정회원 가입 한인신학교 세 번째 인가...통신과정도 허가

그레임시먼대학교(GMU, 총장 김광신 박사)가 ATS정회원 가입 관련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본교 도서관에서 열렸다.

GMU는 지난 6월말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ATS 컨퍼런스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한인신학교로는 세 번째로 ATS 정회원이 됐다.

GMU측은 이번 정회원 가입까지 7년이 걸렸으며 GMU의 ATS 가입으로 예일, 프린스턴 등 주류신학교와 학점교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단 ATS 정회원 승인 전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주류신학교의 입학사정관의 재량에 따라 편입학여부가 가려지지만, ATS정회원 이 된 이상 정회원 승인 전 졸업생들도 주류신학교 편입학에 대한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MU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있으며 대학원은 선교학박사,

석사는 목회학석사, 선교학석사, 기독교교육학 석사과정도 개설돼 있다.

학교관계자는 특별히 선교학 박사과정은 한인신학교로는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회 졸업생까지 배출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본인의 사역의 발전을 위해 한 학기에 한 과목에 한해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GMU는 또한 ATS로부터 통신과정까지 허가를 받은 상태라 어느 지역에서든지 수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학원과정부터 학부까지 한 학기에 60과목이 개설되며 그중 50과목이 온라인과정과 병행해 실시되고 있는데 오는 가을학기부터 실시간 라이브로 강의가 송출될 예정이다.

GMU는 향후 5년 내로 Ph.D 과정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살롬장애인교회 주최 제13회 휠체어사랑이야기 콘서트에서 전문연자들이 연합합창을 하고 있다

12개국 5만 명에 휠체어 제공 제 13회 휠체어사랑이야기 콘서트 성료

살롬장애인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주최한 제 13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가 17일 오후 7시 30분 원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박모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소프라노 박유선, LA남성 선교합창단, 유엔젤보이스, 남가주 농악교회 수화전양팀, SDM전양팀이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박모세 목사는 인사말에서 “장애인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제 13회 연례콘서트 ‘휠체어 사랑이야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며 “휠체어 사랑이야기 사업을 통

해 지금까지 총 33차에 걸쳐 12개국에 5만 명 이상의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동시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경기침체로 인해 선교기금 마련하는 일이 갈수록 어렵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랑의 이야기가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유영기 목사(SDM 이사장)가 마태복음 25장 34-35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박모세 목사의 지휘로 이날 출연한 모두가 연합합창을 부른 뒤 류재덕 목사(이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5면에서 계속)

인디애나폴리스주 의과대학의 소아내분비장애 기관에 의뢰된 38명의 성별혼란관련 소아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반 이상의 아이들이 정신질환과 발달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 반 이상의 아이들이 동시이환을 겪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듯이 아이들의 호르몬을 조정하겠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공격적인 치료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실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기도/칼럼

예수님 손은 약손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배를 쓰다듬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누워서 엄마 손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며 느릿느릿 자고 나면 신기하게도 씻은 듯이 낫기도 했다.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인체의 신경조직은 뇌에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굵은 신경조직과 느린 속도로 전달하는 가는 신경조직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출생 이후에 발달하는 굵은 신경조직은 일반적인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반면에,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형성되는 가는 신경조직은 엄마의 애정과 같은 사랑의 감정을 뇌로 전달해주는 것이다. 엄마의 손이 약손이라는 근거는 사람이 담긴 엄마의 손이 닿을 때 가는 신경조직을 통해 사랑의 감정이 뇌에 전달되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고통을 덜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엄마의 손이 약손이듯이 예수님의 손도 약손이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신다. 피흘린 손으로, 못 박하신 손으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다. 외롭고, 지치고, 상하고, 쓰리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신다. 몇 번이고 어루만져 주신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해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신다.

예수님 손은 약손이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상처를 얼마든지 낫게 해주시는 사랑의 약손이다.

bible66@gmail.com



평택대학교 마드리갈싱어즈 LA공연이 콜번스쿨 지퍼홀에서 열렸다

교수들 이중주...라크마합창단 찬조출연 평택대학교 마드리갈싱어즈 LA공연

평택대학교 마드리갈싱어즈(지휘 김형기 교수) LA공연이 콜번스쿨 지퍼 콘서트홀에서 16일 오후 7시 30분 성황리에 개최됐다.

평택대학교 이필재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공연은 ‘볼레로’, ‘나를 구원하소서’, ‘낙원에서’ 등 성악곡과 ‘태극기 휘날리며’, ‘지금해요’, ‘연덕위의 집’, ‘그대 내 품에-그대 내게 다시-오늘 같은 밤’ 등 사랑과 행복의 노래와 ‘부르신 곳에서’, ‘예루살렘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살아계신 주’ 등 성가 곡을 불렀다. 이날 마드리갈싱어즈는 전반적

으로 곡 하나하나에 지휘자와 합창단원이 뮤지컬이 연상되는 듯한 역동적인 공연을 펼쳤으며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곡들로 엮어진 ‘Highlights from Les Miserables’를 부를 때는 실제적인 뮤지컬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이날 첼로 정영안 교수와 피아노 황소명 교수의 이중주, 황소명 교수와 이루사 교수의 피아노 듀오 연주 등이 있었으며 라크마 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공연을 빛냈다. (박준호 기자)

(8면에서 계속)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이며, 둘째는 그 말씀의 강한 적용이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의 타락은 설교의 타락에서 출발한다. 청교도주의를 부흥운동 각성운동 설교운동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은 근저에 성경 운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설교를 잊지 않았다. 퍼킨스와 에임스의 설교론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이른 이유 중의 중요한 한 가지는 세속적 가치관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설교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목사들과 교회가 걸립을 잡지 못하고 있다. 청교도

의 설교론에 있어서 강점은 적용인데, 이 점에서 교회 설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의 약점은 적용부분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퍼킨스와 에임스의 설교 적용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분석적이다. 대각성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도 강한 적용을 잊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교회의 설교자들이 겸손함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설교자들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설교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다. 순전한 복음전파,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설교, 경건한 목사의 삶, 구체적 설교의 적용, 거기다 신비롭기까지 한 설교자를 기꺼이 돕는 천사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며 변화를 경험하리라 확신한다. younsuklee@hotmail.com

그게 그런 뜻이었어?

성경의 압축과일 풀기

(7면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원어 그대로 하나님이 노예가 되셨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에는 누구나 “아멘”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다.

노예가 어떤 존재인가?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100% 복종한다. 노예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산다. 노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노예의 생명은 100% 주인에게 달려 있다. 노예의 운명은 100% 주인에게 달려 있다. 노예는 100% 주인에게 속해 있다. 노예는 100% 주인에게 의존한다. 노예는 주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노예는 성공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노예는 하루하루 주인의 은혜로 산다. 노예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노예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 바친다. 죽기까지 복종한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 하나님을 ‘주님’(Lord)으로 섬기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노예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모라바인 청년들처럼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탄과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기에 그 청년들도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행복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jinilee1004@yahoo.com

동부교계 기사판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2016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목사)가 2016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리더(대표 정영숙 박사)가 주최하는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7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사흘간 뉴저지 리벤젤 리저릿 센터에서 열린다.

흠스 회복사역 리더십 컨퍼런스

흠스(HMMS, 부모회복학교) 회복사역 리더십 컨퍼런스가 8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메릴랜드 안나산 기도원에서 열린다.

“행복한 목회, 부흥하는 교회”

뉴욕교협 목회자세미나, 강사 원팔연 목사

2016년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가 인도한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뉴욕교협 회장 이종명 목사는 3일간 대외 강사로 수고한 원팔연 목사를 치하하며 “좋은 일기와 근래 보기 드문 강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미나는 황경일 목사 사회로 기도 황규복 장로, 회장인사 이종명 목사, 성경봉독(요21:15-17) 송원



원팔연 목사를 강사로 한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섭 목사, 원팔연 목사의 세미나로 이어졌다.

원팔연 목사는 “교회성장과 행복한 목회를 위한 목회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목회 45년의 체험을 나눴다.

했다고 강조했다.

원 목사는 “행복한 목회, 부흥하는 교회의 2가지 소신을 갖고 목회를 했다”며, 행복한 목회를 위한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9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성도들을 주님께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라 둘째, 좋은 사람(사모 등 숨은 동역자)을 만나라. 기도를 통해 만난다. 셋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라.

이날 총무 박진희 목사의 광고 후 황동익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한마음교회에서 KCS 공공보건부가 교인들에게 혈압검사를 하고 있다.

한인 교회여성 3명중 1명 고혈압

KCS공공보건부, 한인교회 대상 KOT프로그램 실시

KCS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뉴욕 및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교회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고혈압이라고 발표했다.

KCS 공공보건부는 2015년부터 뉴욕 및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세 곳의 한인교회(뉴저지 소망장로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후러싱제일교회)에서 뉴욕시 보건국 뉴욕의과대와 함께, 뉴욕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혈압관리 프로그램(KEEP ON TRACK, KOT)을 도입해 조사했다.

뉴욕시는 평소 헬스케어에 잘 받지 못하는 뉴요커들이 종교기관, 시니어센터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할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작년 9월,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런칭한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경호 목사)에서는 지난 10개월간 798명이 혈압을 측정했고, 뉴저지 소망장로교회(담임 박상진 목사)에서는 6개월간 288명이, 뉴욕효신장로

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총 297명이 혈압측정 행사에 참여했다.

한인교회에 도입된 KOT 프로그램은 교인들이 친숙한 문화와 언어 및 편리한 환경에서 혈압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맞춤형 방식입니다.

한인교회내 KOT 프로그램의 시행 이후 KCS와 KOT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은 혈압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인근 지역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KCS는 “KOT 프로그램의 시행이 한인사회,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무척 고무적”이라며 “한인 교회, 기관 등에서 뉴욕시 KOT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면 KCS 심장병 프로젝트 담당자 트레이시 덴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의: (212)463-9685(ext. 205), 이메일 tdenholm@kcsny.org



살롯장로교회 여름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CAVE QUEST’ ...예수님 따르는 삶 배워

살롯장로교회 여름어린이 성경학교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올해도 지난 7월부터 사흘간 여름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었다.

이번 어린이성경학교는 동 교회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에티오피안 교회인 엘 카봇 이벤젤리컬처치와 함께 개최했다.

‘CAVE QUEST’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동굴의 삶을 헤쳐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닦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실감 있게 모험 동굴 체육관과 온통 검정 동굴로 변한 교회 교육관을 해매며 학습했다.

마지막 날은 거대한 INFLATABLE 놀이 기구를 체육관에 들어 놓고 함께 뛰고 함께 미끄럼 타고 밖에서는 물놀이를 즐기며 재미난 학습을 마쳤다.

마지막 설교 후에는 초, 재 현신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삶을 드리는 다짐을 했으며, 매년 해오던 대로 정성어린 선교 헌금 500달러를 모아 에티오피아 베헤촌에 보내는 쾌거를 이뤘다.

다민족 교회를 목격하는 교회로서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다시 한번 성공적인 시도를 이룰 수 있었다.

담임 나성균 목사는 “아름다운 새 전통의 성경학교였다”며 “은교우들의 정성어린 헌금과 수고에 감사한다. 사역자들과 봉사자들과 교사들, 크루 리더, 진행자들을 비롯한 125명의 헌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서광교회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뉴욕서광교회 설립23주년 기념 감사예배

뉴욕서광교회(담임 최고선 목사)가 17일 설립 23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앞서 20년 전 교회에 처음으로 주신 생명의 “서광 Baby 1호” 크리스 형제를 리더로 청년부, 중고등부, 유년부로 구성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예배 중에는 성가대의 특별 찬양과 MAS 자매들의 특송 등 특별 순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날 최고선 목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마4:23-25)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성도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이 되며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아 있는 예배가 된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전했다.

최고선 목사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설명하며 설립 23주년을 맞는 교회에 주시는 사역을 전했다. 세 가지는 첫째 바로 가르치는 사역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셋째, 교회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곳임을 전했다.

한편 뉴욕서광교회는 교회 설립 23주년 감사예배를 앞두고 일주일 간의 특별채색기도회를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서광교회)

Large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es a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sloga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ultiple congregations.

'행복한 목회 컨퍼런스' 개최한다

은혜한인교회 주관, 강사 행복목회아카데미 백동조 목사

행복목회아카데미(대표 백동조 목사)가 주최하고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주관하는 행복한 목회 컨퍼런스가 내달 15일(월)과 16일(화)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된다.

세미나에 앞서 12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기홍 목사는 "행복한 목회 컨퍼런스는 지난 2011년 3월 백

동조 목사(목포사랑의교회 담임)가 행복목회 아카데미 세우고 올해 7회 맞아 한국에서는 1500명 이상 목회자들이 컨퍼런스를 통해 행복한 목회를 경험한 검증된 세미나"라고 소개했다.

한 목사는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행복한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백동조 목사님을 집회강사로 초청했을 때, 백 목

사님의 비전이 나와 같은 걸 발견했다. 백 목사님은 행복목회에 대한 철학과 방법론을 정립하고 계신 분이기에 이미 행복목회 세미나를 진행하며 계속해서 이번에 열리는 '행복한 목회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게 됐다. 컨퍼런스를 통해 이민목회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 OC한인목사회(회장 광재필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기서 목사), JAMA(대표 강순영 목사)가 후원하는 '행복한 목회 컨퍼런스' 참가대상은 이민교회회를 섬기는 담임목사, 사모, 선교사, 부교역자 모두를 환영하며, 등록비는 교재 및 식사 포함 1인 100달러, 부부 150달러다. 컨퍼런스 첫날 오전 9시 행사장에서 당일 등록도 받는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가 주관하는 행복한 목회 컨퍼런스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은혜로교회에서 열린 부흥성회에서 이팔재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주제로

2016 은혜로 부흥성회, 강사 이팔재 목사

은혜로교회(담임 김경환 목사)는 2016 은혜로 부흥성회를 15일부터 17일까지 이팔재 목사(캘리포니아대학교 총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관계'를 주제로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과 김경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첫날 집회는 이강현 장로가 기도,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었으며 이팔재 목사가 '영적 성장의 교과서'(엡6:10-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팔재 목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중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이 됐다. 그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라 말했다.

이목사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

의 영이 영적교제를 통해 세상을 살게 된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령의 충만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영성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치유적 능력, 인간관계에서의 치유적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팜택대학교 마드리갈싱어즈의 특별순서가 있었으며 이팔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둘째 날 새벽집회에서 이팔재 목사는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가'(창1:26-31), 셋째 날 저녁집회에서는 '이삭과 이삭마엘'(창21:8-21)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교회창립 46주년 감사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동양선교교회 설립46주년 기념 감사콘서트 '희복' 주제로 김승덕 목사 장승기 자매 등 출연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교회설립 46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콘서트가 17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됐다.

승기선 사모(새생명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김승덕 목사,

2015 CCM루키 대상수상자 장승기 자매, 색소폰연주자 켈빈 박, 찬양선교단 옹기장이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희망을 전하는 기타리스트 김지희 미라클 기적콘서트가 작가의집에서 열렸다

희망을 전하는 기타리스트 김지희 자매 미라클 기적콘서트... 한인뮤지션들 찬조

희망을 전하는 기타리스트 김지희 미라클 기적콘서트가 16일 오후 6시30분 작가의집에서 열렸다[김지희 자매 인터뷰 14면].

이날 콘서트는 김지희 자매가 '바람의 시', 'Twilight', 'Isn't she lovely'를 연주했으며 색소폰양상블 더 클래식 색소폰즈, 소울하모니, 제임스 장, 레미리(그룹 뉴오리지노) 리드싱어) 등 한인뮤지션들이 찬조 출연해 콘서트를 빛냈다.

특별히 김은정 씨가 박상균 씨(유스타미디아)와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와 '소원'을 수어로 불러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또한 지적장애 3급 김지수 형제(태권도 4단)가 태권도 시범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김지희 자매와 김지수 형제가 그린 그림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옹기장이 초청 찬양집회
한빛성결교회(담임 차광일 목사)는 본 교회 청년부 주관 옹기장이 초청 찬양집회를 24일(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문의: (213) 604-4703

엘피스 사역원 오픈예배
엘피스 사역원(원장 박은송 목사) 오픈예배가 24일(주) 오후 5시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 1200 S. Manhattan Pl, LA)에서 열린다.
▲문의: (213)700-9928

기적콘서트 4
유스타미디아(대표 박상균)가 주최하는 기적콘서트 4가 28일(목) 오후 7시30분 일서이벤트장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더클래식 김광진, 토이 객원싱어 김형중, 그리고 기타리스트 김지희의 자매가 출연한다.
▲문의: (213)435-6622

이라크 쿠르드 지역 난민 의료선교 리사이틀
치과의료선교회(GDA)가 주관하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난민 의료선교(금성)를 위한 리사이틀이 8월 7일(주) 오후 6시 세계동대교회(846 S. Union Ave, LA)에서 열린다. 이번 리사이틀은 테너 오우영 목사와 피아니스트 구소라 씨가 출연한다.
▲문의: (310)404-5555

Meet the Mentors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상철 목사)가 주최하는 Meet the Mentors가 23일(토) 오후 2시, 장소는 본교회 아벤젤러 카페에서 열린다.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청, 전공과 직장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제는 의학, 치학, 약학, 간호학, 법률, 마케팅, 컴퓨터 IT, 엔지니어링, 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디자인이며 참가 대상은 중/고등/대학부, 청년부 JOF(학생 및 부모님)이다.
▲문의: (580)483-4714 홍보팀 목사

베델한인교회 신학강좌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는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22일(금)부터 24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희석 목사(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박은규 목사(교회사 전공,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역사신학교수 및 기획처장), 정승원 목사(변증학 전공,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채규현 목사(설교학 전공,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외래교수)
▲문의: (949)854-4010

긴급 기도요청
필리핀 박지덕, 장귀순 선교사 둘째 딸, 박영은 양(31세)이 혈액암으로 투병중이다. 2014년 림프종(혈액암)에 걸려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며 항암요법 11차에 자가 골수이식까지 해 암세포를 없애는데 성공했으나 올해 초 다시 재발, 현재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의식은 있으나 체력이 없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병원에서 다시 한 번 방사선을 해보려고 권해 1차 시도를 마쳤다. 앞으로 9월가 더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방사선 부작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연락처: 장귀순 사모 010-2181-4070



| | | | | | | | | | | | | | |
|---|--|--|--|---|--|--|--|--|--|---|--|---|--|
| <h2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 style="text-align: center;">서부(CA)교회안내</h1> | | | | | | | | | | | | | |
|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말예배: 오전 10: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말예배: 오전 11:30(영성) 주말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 |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말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 |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 |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EM, 새벽기도회: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 | | | | |
|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말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 |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말예배: 오전 11:00 영양(월-토): 오전 11:20 영양(일): 오전 11:00(영양) 성인영어예배: 오후 7:30 대학예배: 오후 1:00 대학예배: 오후 5:00(월-토)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ckpc.org | |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말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ckpc.org | | 등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pc.org | |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통증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228 (전화 박스 전용), Tel: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 |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후 5:40(월-토) www.mj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
|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 |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오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말예배: 오전 11:00(영성)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예배: 오후 1:00 대학예배: 오후 5:00(월-토) Tel: (949)854-4010 / E-mail: beb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 |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 |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말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 |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 | 엘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말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 |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기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후 5:40(월-토) 주말학교: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 | |
|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말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선: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 | | 주님새문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 |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org | |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말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 |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 |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영)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5부예배: 오후 3:00(영성) 장영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icc.org Tel: 310-370-2009, Fax: 310-370-2009 195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

선교의 창 (59)

선교적 측면에서 본 내부자 운동(Insider movement)

송중록 목사 (대학선교, Ph.D)



21세기 선교는 세계의 핵심종교들과의 정면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중 가장 큰 세력이 이슬람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였던 사무엘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은 '가장 중점적인 문명의 충돌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처에서 그 증표가 나타나고 있다. IS 같은 극단주의적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상화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간 긴 세월 고전적인 선교방식은 한계에 직면해왔다. 무엇인가 새로운 접근을 갈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내부자 운동(Insider Movements)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며 선교현장 가운데 실제로 적용돼 일어나고 있다.

내부자 운동이란 무엇인가? 레베카 루이스(Rebecca Lewis)에 의하면 이 운동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원래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덧붙이면 이 운동은 이슬람, 불교, 힌두, 공산권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머무른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으로 주로 이슬람권에서 상용화된 선교전략으로 논의되어왔다.

내부자 운동의 출현 배경

"내부자 운동"(Insider movement)은 선교학자 알프 윈터와 존 트라비스, 케빈 히긴스 등에 의해 주장된 전방 개척선교(Mission Frontier) 전략의 한 방법이다. 이는 특히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무슬림 선교에 효과적인 '맞춤 선교전략'으로 거론되고 있다. 내부자 운동 주장자들이 내세우는 이 운동의 강점은 무슬림의 복음화를 외부 선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종한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직접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이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효과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내부자 운동"이 선교의 새로운 모델로 관심이 일고 있는 이유는 현실적 여건 때문이다. 첫째는 생존적 차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내용(Meaning)은 성경적이지만 그 형식(Form)은 현지 문화와 종교 관행을 따른다는 것이다. 무슬림 국

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사회뿐 아니라 가족들에게서도 배척을 당할 수 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등 각종 불이익과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개종자로 하여금 기독교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형태이다.

둘째, 선교적 차원이다. 실제 초대 카타콤 교회에는 이런 내부자적 성격의 운동이 있었다. 그들은 은밀하게 몰고기 표시로 내뿜었다. 지금도 북한 등 침묵적 접근 지역에서 복음의

창의적 접근 지역의 선교는 단편적일 수 없다.

내부자 운동은 다양한 선교방안의 일환일 뿐이다.

이 운동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해 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미수꾼들에 의해 내부자적 복음전파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권 내에서 이 운동은 개종자들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친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자 운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케빈 히긴스(Kevin Higgins) 목사는 우려하는 혼합주의 요소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혼합주의는 복음주의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다. 내부자 운동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 중심의 운동이 되면 된다"라고 비판적 시각을 일축했다.

내부자 운동의 위험적 요소

내부자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란인 개종자로서 현재 JFM 대표인 프레드 페로크(Fred Farrokh) 선교사는 매우 비판적이다. 그는 "내부자 운동의 동기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화가 주가 되면서 상황화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왕국 라인 도표'(Kingdom Lines Diagram) 중 성경의 핵심인 '예수는 신성한 주, 구원자다(Jesus is Divine Lord and Savior)'라는 '성경라인'과 코란의 '예수는 단지 선지자일 뿐이다(Jesus is

only a prophet)'라는 '코란라인'을 절대 변경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평행선으로 소개했다.

그는 "무슬림에 대한 기독교 선교의 목적은 코란라인에서 벗어나 성경라인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고, 구원자 되신 것을 믿는 성경라인까지 가려면 무슬림은 반드시 코란라인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종자는 현실적으로 같은 공동체에서 "변절자가 되지 않으려는 두려움과 압박이 크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이 코란라인을 고수한다"며 "무슬림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경라인과 코란라인의 중간 지점인 크리슬람 라인인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기독교인과 무슬림 모두에게 혼동을 준다는 것이다.

내부자 운동에 대한 전략적 시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무슬림이 그들 공동체에서 죽임 당하거나 추방당하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선교사는 어떻게 현지 개종자들에게 말해야 하는가? 보수적 시각으로 압박할 것인가? 이는 그를 당장 사지로 몰게 만들 수도 있다. 반대로 현지 체제와 문화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이종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혼합주의는 갈등을 유발하며 중국에는 또 다른 잠종교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답은 어렵지 않다. 인간이 성령보다 앞서 지시하고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따라서 당사자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면 된다.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에 감동이 된다면 순교도 할 것이다. 반면에 이제 배 속의 태아처럼 영적 생명이 싹 터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준비 안 된 태아가 일찍 세상으로 나오면 죽듯이 그들도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두를 필요 없다. 시작을 믿음으로 했다면 나중

도 성령께 위탁함이 바르다. 언젠가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이 동토를 뚫고 나와 줄기가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을 날을 기대하면서!

맺음 말

이슬람 선교의 사도라 할 수 있는 사무엘 츠웨머(Samuel M Zwener)는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 만일 이슬람이 최후의 종교이고 인류의 소망이라면

이슬람의 모든 가르침과 요구사항을 문자 그대로 따르도록 하라.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가 최후의 종교이고 인류의 소망이라면 그대의 모든 마음과 입술과 생명을 다해 그분을 따라가라. 그대의 신념에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중간은 없다. 복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원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는 얼마든지 상황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선교를 아예 포기해야 한다.

아무튼 지금은 선교적 종말의 차원에서 위중한 때이다. 우리는 이런 내부자 운동이 선교의 간박성과 중요성을 말하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마저 없다면 여리고 성 같은 저 이슬람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강조하건대 내부자운동은 종교개혁이 있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역방안의 일환이다. 이 모델은 이슬람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다. 이 모델은 모양을 다듬어가는 과정으로서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운동이 상황화(Contextualization)라는 미명 하에 혼합주의(Syncretism)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나아가 성경이 왜곡되거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은 선에서 전략적으로 발전해가도록 부족함이 마땅하다. 어차피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방법은 획일적일 수는 없다. 최종 판단은 주님의 뜻이다.

jsong007@hanmail.net

선교 펴기

런던 Arise 집회 참석

저희는 이곳 런던 Arise 집회(최종상 선교사님이 학장으로 계신 AMNOS 주최)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화)부터 시작해서 8일(금) OM 참립하신 조지 버워 목사님의 말씀 들은 후, Training을 마치고 7일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분(110명)들이 영국과 웨일즈의 13개의 지역교회와 함께 Outreach(축조전도)에 나섭니다.

이분들이 초대해서 오신 분들과 함께 연주와 예수님을 소개하는 Concert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거의 매일 연주해야 함으로 저의 체력과 성령 충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1)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일어나 헌신기도를 한 전체참가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 2) "영국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교하신 말씀을 듣고 전도활동 기간 동안 헌신을 다해 초청한 교회 팀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 3) 제가 육신적으로 피로하지 않고 피아노 선율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영국을 위한 기도 제목도 올려 드립니다.

1. 영국 전역에 부흥과 교회 갱신의 바람이 불어 온 영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2. 영국교회 지도자들이 교세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비전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도록.
3.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믿는 바를 삶으로 보여주도록.
4.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5. 청소년 사역이 활성화 되어 잃어버려진 세대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도록.
6. 더 많은 전도인력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단체나 신학교에서 훈련받아 기독교 사역자로 준비되도록.
7. 목회자 없이 노인들만 남은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모시게 되어 소생되도록.
8. 교회개혁 사역자들이 잘 훈련받아 건강하고, 성서적이며 따뜻한 교회를 많이 개척하도록.
9. 여왕, 정치가, 법조인, 교사, 언론인, 실업인 등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제자의 사명을 다하며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10.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열리는 전도행사가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양육도 잘 되도록.

피아니스트 김애자, 조성문 선교사 드림. 이메일



조지버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후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김애자 피아니스트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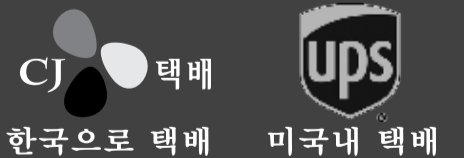
단체 T셔츠

전문

교회/매장/기타단체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 오전 9:30-오후 8:00

- ♦ 기독교서적
- ♦ 기독교용품
- ♦ 일반서적
- ♦ 서예용품 전문
- ♦ 2016년 달력제작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인/터/뷰

희망을 연주하는 기타리스트 김지희 자매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기보다 희망이 되는 기타리스트가 됐으면 합니다.”

지난 7일 카페 지베르니를 시작하고 8일 미주경제인대회 폐막식 공연, 15일 북창동순부두, 16일 작가의집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28일(목) 저녁 7시30분 월서이벨 극장에서 열리는 기적콘서트 4(주최 유스타미디아, 대표 박상균)에 게스트로 나서는 기타리스트 김지희 자매(22세)를 만났다.

1994년 10월 7개월반 만에 태어난 지희 자매는 병원에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6살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 소리를 냈고 초등학교부터 고3때까지 수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한 지희 자매는 성인이 되었을 때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가 걱정거리였다.

지희 자매의 어머니인 이순도 여사는 “지희의 소극적인 성격이 친구를 사귀지 못할 정도였어요. 사회성이 부족했고, 유치원과 학교에서 항상 울면서 불안했습니다.”라고 들려준다.

어린 시절 그림에 소질을 보였던 지희 자매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캐릭터 등 그림을 그리며 미술학도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학원에 다니며 그림을 그렸지만 좀처럼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한다.

“지희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게 했더니 선이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또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마침 학교선생님도 그림을 그리게 해보라는 권유가 있어서 미술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희가 좀처럼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것이예요.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생들과도 어울리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중3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가 지희를 못



7개월반 만에 태어난 지적장애인... 또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 전해
월 2회 병원 환우위한 음악회 등 수많은 음악회서 공연도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집 앞 200미터 앞에 있는 놀이터에 혼자 가는 것도 두려워 할 정도로 극도로 소극적이었던 그래서 성인이 된 후 삶에 대해 늘 걱정거리였던 지희 자매의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기타였다.

동기타를 좋아했던 지희 자매의 아버지가 지희 자매에게 함께 노래하기 위해 코드 몇 개를 가르쳐주었는데, 지희 자매가 치는 기타소리가 매우 맑고 예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고 썸머뮤직캠프 참여를 권유받게 됐다.

“고2때 지희가 학업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아빠가 지희는 공부 대신 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키우려고 했어요. 그것중 하나가 기타였는데 지희에게 소질이 보여요. 마침 지희 선생님도 지희의 소질을 알아보고 썸

머뮤직캠프를 보내보라는 권유를 받았던 거죠.”

썸머뮤직캠프는 지적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청소년의 1대1 매칭으로 진행되는 메이트 캠프다. 이 썸머뮤직캠프에서 기타리스트 이병우 교수(성신여대)를 만나게 된다. 이병우 교수로부터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지희 자매는 본격적인 기타리스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2012년 10월부터 준비한 곡으로 6개월 만에 대전방송 주관 전국장애학생 콩쿠르에 나가 고등부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그의 소극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지하철 공연, 흥대거리공연과 카페공연 등 버스킹을 하게 됐다. 그리고 2013년 평창 동계스피셜올림픽 폐막식에서 기타독주무대, 같은 해 12월 예술의전당에서 이병우 교수와 합동공연 등

무수한 무대에 오르게 됐다.

이순도 여사는 지희 자매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장애인의 삶을 보면 장애가 단순노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요. 지희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을 텐데, 기타리스트의 삶을 살게 되면서 장애를 극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지희의 학습능력이 초등학교 1-2학년 정도 수준인데 부족하지만 기타연주를 하는 모습 속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는 것을 볼 때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난 2015년 4월 LA에서 열린 혈액암 환자와 발달장애인들끼리 ‘기적콘서트 2’ 특별게스트로, 같은 해 7월 유스타미디아 주관 발달장애인들끼리 단독 미니콘서트 공연을 한 김지희 자매는 본인이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에 참여하게 돼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용기

무더위 속 할렐루야 2016 대뉴욕목음화대회 성료

(1면에서 계속)

“하나님을 감동케 하먼”이라는 주제에 맞춰 원팔연목사는 첫날 “선민이여!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시오”(창12: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설교전문 4면 참조].

둘째 날 원팔연목사는 “선민이여! 꿈을 가십시오”(창37:5-11)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선민답게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시련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자제로 변명하지도 않았고 꿈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꿈을 성취하는 요셉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 전했다.

“첫째, 꿈을 가지는 것은 우리이지만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선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한다. 둘째, 요셉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다. 셋째, 꿈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원팔연목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말씀을 맺으며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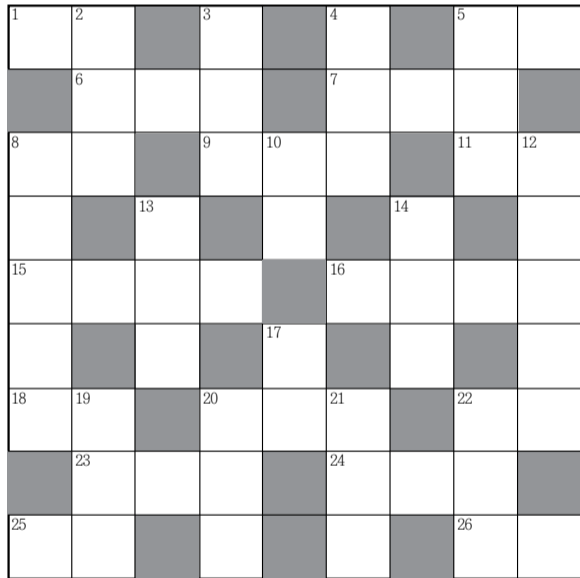
셋째 날 원팔연목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딤후2:1-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며 수정교회 로버트 슬러 목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 그 큰 교회가 천주교에 넘어갔다.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3가지 증거는 첫째 구원의 확신, 둘째 변화된 증거(행동), 셋째 행복한 삶”이라며 하나님의 소원 27가지는 성전건축과 교회성장이다. 천주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은 현재 6만명의 선교사가 1년에 1억원씩 선교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3대 사명은 교회파괴, 가정파괴, 기독교인의 신앙타락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원목사는 “교회성장의 비결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목사가 소신껏 목회하는 교회는 모두 성장한다. 사기꾼이나 사위비, 불순한 사상, 사리사욕을 갖지 않은 목사에게 무조건 따라야 한다. 목사는 목사이며 하나님의 사자이며 교회대표이며 목회전문가”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십자말 • Cross Word (133)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 참된 도리(요8:32).
- 현세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죽은 후에 가서 고통 받는 멸망의 암흑 세계(마5:22).
- 아이 부근에 있던 채석장이다(수7:5).
- 새벽에 동쪽에 보이는 금성(사14:12).
- 야곱의 딸 디나가 이국 추장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함(창34:2).
- 해 그림자의 이동을 이용하여 시각을 측정(왕하20:11).
- 작은 칼(렘36:23).
-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인 1천명을 죽인 곳(삿15:15-17).
- 패악하고 불순하여 도덕에 어긋남(삼상20:30).
- 로마에 있는 교우로, 바울에게 부탁하여 디모데에게 문안하였다(딤후4:21).
- 새찬송가 492장.(열린 OOO 내가 들어가...)
- 스브논의 큰 아들(느11:31).
- 어머니의 남편.
- 중심에서 둘레까지의 거리가 똑 같다(레19:27).
- 룻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 낳은 아들(겔25:10).
- 운수가 좋음(렘26:2).

<세로 푸는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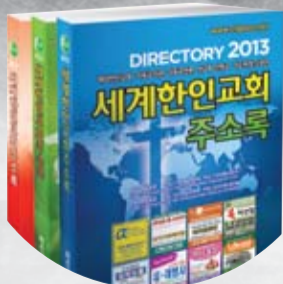
- 야노힘의 몸에서 난 사울의 아들(삼상14:49).
- 유대인이 하만의 계계에서 구함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에9:31).
- 땅과 땅 사이에 경계를 하는 표(신27:17).
- 하나님의 법계를 모셔 두었던 가장 거룩한 곳(출26:33).
- 소아시아 부르기야도의 한 성(골4:13).
- 영원무궁한 생명(1:2).
-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호사밧이 임명하여 유대로 보낸 레위인(대하17:8).
- 앗스루 왕 산헤립의 한 아들(왕하19:37).
- 반역하는 사람(호5:2).
- 여러 나라(욥3:12).
- 헬라인에게는 데베스라고 알려진 예굽의 도시(나3:8).
- 하늘이나 땅이나신(신3:24).
- 나병(눅5:12).
- 유다지파의 남부에 있는 성읍(수15:22).

십자말 정답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7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7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 | | | |
|----------------------------|-----------------|---------------|--------------|------------|
| 유 료 광 고 안 내 | 둘출(표지) | 3.5cm × 4.5cm | \$600.00 | |
| | 전면칼라 | 17cm × 24.5cm | 표지내면(2면, 3면) | \$3,000.00 |
| | | | Back 면 | \$3,500.00 |
| | | | Back 면 내면 | \$2,000.00 |
| | | | Inside | \$1,000.00 |
|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 | | | |
| 전면흑백 | 15.5cm × 23.5cm | \$800.00 | | |
| (칼라) 전면 1/2 | 15.5cm × 5.8cm | \$600.00 | | |
| 전면1/4 | 15.5cm × 5.8cm | \$350.00 | | |
| | 7.7cm × 11.7cm | | | |
| 전면1/8 | 15.5 × 2.8cm | \$250.00 | | |
| | 7.7cm × 5.8cm | | | |
| 둘출 Listing | Listing size | \$100.00 | | |

| | | |
|--------------------------------------|----------------|-----------------|
|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 ① 교회(기관)이름 | 한글 : 영문 : |
| | ② 교회(기관)주소 | |
| | ③ 교회전화 & 팩스 | Tel.() Fax.() |
|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 한글 : 영문 : |
| | ⑤ 사택주소 | |
| | ⑥ 사택전화 & 팩스 | Tel.() Fax.() |
| | ⑦ E-mail Add. | |
| | ⑧ Web Add. | |
| |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3)

7. 안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안인교회를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 (37) (Curricu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찬칼리지 교수)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 중 마지막 기초인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Curricu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한인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양질의 교사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방법들을 구상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이야기들에서는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문적인 기독교 교육자들을 교사로 모시는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사례를 드리고 말입니다. 사실 아주 예전부터 미국교회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 하는 것

과교육을 전공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신학교로 진학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바로 커리어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교육 전문가로서, 교회학교 책임교사 및 일반교사로서 교회에서 그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교사는 자원봉사자 이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때의 기억들과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한국교회들의 전통적인 부분들로부터의 영향으로, 한인교회에게 있어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제까지 쪽 항상 자원봉사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를 사례를 드리고 모셔온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온 일, 즉 교회교사는 모두 자원봉사자들의 몫으로 두어온 일이

전문적인 혹은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모셔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는 비효율적으로 더 많은 수의 다음세대들을 교육하고 있으면서도, 사례를 드리는 교사를 모시는 데 물질적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례를 드리고 전문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진 능숙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양질의 교회학교 교사를 모시는 일은 세속적인 관점을 교회시스템 안으로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에, 이를 배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비성경적인 일도 아니며, 비기독교적인 일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교육에 대한 교회의 사명(마28:18-20)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을 통하

양질의 교사 확보는 전문적인 기독교 교육자 교사 채용 좋은 교사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 받도록 해야

처럼 사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일학교운동 자체가 글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글을 가르치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조금은 실질적인 지식과 보다 강한 책임감을 요구하였기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미국교회들 중에는 어린이 예배나 청소년 예배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른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린 후 각각의 그룹에서 주일학교 활동이 진행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경우 전담 사역자들을 두기도 하지만 책임교사 및 전문 교사진들로 사역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아서, 교사들에게 사례를 하는 일의 명백은 미국교회 안에서는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례를 받는 교사와 자원봉사 교사가 혼재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례를 받는 교사 체제가 꽤 많은 미국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사실 우리 한인교회들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와 목회를 담당하는 사례를 받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교사들이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있어서 미국교회의 교육현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한인 교회가 목회자 외에,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교회교사로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모시는 일에 열려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교회들의 경우, 학부에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Tent-maker)의 개념도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전문성과 능숙함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세대를 무상으로 섬기는 많은 교사들은 사실 존경받아 마땅하며, 한없는 사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 꼭 물질적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양하고 반드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를 표현하며, 교회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여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양질의 교사 수급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해도, 전문적인 교회학교 교사를 사례를 드리고 모시자는 것은,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대할 때면 흔히 갖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불편함을 우리 한인교회들에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낯설지 않은, 그리고 양질의 교사들을 확보하는데 제법 효과적이며, 사례를 드리고 전문적 기독교 교육자인 교회교사들을 모셔 오는 체제를 고민하고 진행하는 일을 불편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비율로 따지면, 현재 미국교회들보다 우리 한인교회들의 교회학교 다음세대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상 더 작은 수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미국교회는 적절한 투자를 하여 사례를 드리고

여 명령하신 신앙적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교육적 사명(신6:4-9)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대단히 성경적이며, 기독교적 원리에 부합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교육적 질문은 사례를 드리고 교사를 모시는 이슈가 옳은가 그런가 두고 감론을박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얼마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교사 수급 문제에 적극적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례를 드리는 교사를 모시는 일이 각 개교회 상황에서 그와 같은 대처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누구보다 해당부서의 교사 수급 상황에 민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교사라는 존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감을 갖기에 앞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긍정적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고려해보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열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들에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좋은 교사들은 사례를 받는 것을 통해 대교회적으로 본인들의 시간에 대한 헌신을 약속할 것이므로, 우리 자녀들은 그 좋은 교사들에게 꾸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먼저 생각할 일(마16:21-28)찬206장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파수하는 것이 교회 가 항상 싸워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는 왜 실 패했습니까? 첫째, 인정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19).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적으로 이해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사탄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정의 장벽을 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길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23). 자기를 부인하고 자

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주님은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생명이 일어났습니다(24).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4).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의 실수로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화 복음의 변화산(마17:1-13)찬473장

혼돈과 흑암이 짙은 시대에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깊이 배울 수 있는 변화산으로 나갈 때 귀한 진리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세 세대의 감격을 배웁니다(4).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지켜본 세 세대들이 '여기 있는 것이 좋다' 그 감격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며 감당할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비록 황홀경에 빠진 그릇된 고백이지만 그 마음에 생긴 감격은 우리에게도 필

요한 체험입니다. 둘째, 주님 말씀을 중심한 삶을 배웁니다(5, 8). 그때 들려온 성부의 음성은 그 아들과 그의 말씀만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그리스도를 중심한 자만이 참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능을 배웁니다(9).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도를 중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수 겨저씨 한 일만한 믿음(마17:14-23)찬375장

겨저씨 한 일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의 산들을 옮길 수 있습니까? 첫째, 믿음이 없는 시대임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17). 적을 알 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신자의 활동무대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의 말씀에 연합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둘째, 겨저씨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20). 겨저나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진 신자는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를 명하는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20). 당면한 문제 앞에 담대히 서는 일이 신자의 할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 역사가 거듭됩니다.

목 문화의 변혁자(마17:24-27)찬444장

성전의 주인되신 그리스도가 성전세를 내는 제도를 지키심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그 시대의 제도를 인정하셨습니다(24-26). 구약에 성전 중심한 삶을 위해 만든 제도를 인정하시면서 그릇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시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는 현실의 그릇된 제도를 뿌리부터 파괴함으로 자신 안에 완성된 사실을 은근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문화의 파괴자나 타협자가 아니고 변혁자이

십니다. 둘째, 성전의 주인되심을 주장하셨습니다(26). 한 비유를 통해 자신이 성전 주인의 아들되심은 그의 뜻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전의 완성시기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전입니다(고전3:16). 셋째, 덕을 세우셨습니다(27).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시고 동참하셨습니다. 제도와 문화를 용납하면서 자신 안에서 그것이 변혁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금 소자가 용납되는 나라(마18:1-9)찬360장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첫째,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3). 곧 겸손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겸손으로 하는 그 나라는 모든 일의 중심인 기쁨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나라입니다. 둘째, 소자를 용납하는 나라입니다(6). 소자가 무시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나라의 성격을 상실한 증거입니다. 어느 사회든 소자가 무시될 때 약육강식이 지배

하는 짐승들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5). 그때 어린아이를 본으로 삼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소자를 영접함이 그리스도도를 영접함이라 함은 소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소자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일하심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백성답게 삼니다.

목 한 사람의 소중성(마18:10-14)찬474장

소자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주님은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 소자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0). 물량주의를 좋아하는 세상 원리와 달리 그리스도도는 소자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신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둘째, 회개한 소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

다(12-13). 습3:17에 보인대로 전능자가 그 안에 계셔서 큰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잔잔한 사람으로 때를 따라 돌보시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자를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14).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운 천국은 언제나 소자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는 열심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Columns include church names like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란교회', etc., and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사진으로 보는 2016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회장 이종명 목사(왼쪽)가 감사 원팔연 목사(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회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와 진행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감사 원팔연 목사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첫날 이만호 목사가 대회 인도를 하고 있다.



둘째날 최창섭 목사가 대회인도를 하고 있다.



마지막날 장석진 목사가 축도하고 있다.



셋째날 김홍석 목사가 대회 인도를 하고 있다.



첫날 김성국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있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헌금송을 하고 있다.



강성찬양팀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연한찬양대가 설교에 앞서 찬양하고 있다.



동 건물 체육관에서 어린이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 “포켓몬 고(Pokémon Go)” 광풍! 복스, “선봉적 인기 넘어 도래할 새 시대 알리는 서막” 보도

지난 11일 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부두에는 수 백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가상의 작은 괴물들, 포켓몬을 잡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LA타임스는 화요일 새벽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부두에 보였다고 전했다. 포켓몬 고(Pokémon Go)는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기 게임에 등장하는 작은 몬스터를 잡고, 이를 키우는 방식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게임이다. 지난 6일 호주와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미국 등지에서 출시됐다.

현재 미국 전역에선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에 피카츄가 나타난다면?’이라는 상상을 현실로 만든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Pokémon GO)’ 광풍이 불고

‘포켓몬 고’는 미국에서 출시 하루 만에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올라섰다. 11일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이 게임이 최소 750만회 이상 다운로드 됐다. 데이터 조사업체인 시밀러랩이 10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출시 이틀남인 8일을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이용자 중 약 3%가 매일 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포켓몬 고의 일일 활성 이용자(DAU) 수치는 출시 닷새 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일일 활성 이용자수를 추월했다. 지난 주말 내내 로스앤젤레스 뿐 아니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곳곳에서는 젊은이들과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포켓몬을 찾기 위해 관광지, 공원, 해변 등으로 쏟아져 나와 진풍경을 이뤘다.

처음 시작은 포켓몬 고 게임이었다. 이내 온통 어딜 가나 포켓몬 고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았다. 어느덧 그에 대한 반발로 포켓몬 고를 비판하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모든 일이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났다. 어쩌면 지금은 이런 글을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인지도 모른다.

있다. 아직 게임이 출시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게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으로 가는 운행 수단들이 마비될 정도다. 아이오에스(iOS)와 안드로이드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선보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시각각 언론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포켓몬 고(Pokémon Go)...

뉴스해설 전문 매거진인 ‘복스(Vox)’ 편집장 예즈라 클라인(Ezra Klein)은 선봉적인 인기를 넘어 미 전역에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 고’의 열풍을,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새로운 것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라고 설명해준다(Pokémon Go isn't a fad. It's a beginning).

하지만 짧게나마 포켓몬 고가 왜 중요한지, 적어도 이에 관한 이야기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를 적어 보려 한다. 당장 앞으로 5년 뒤를 생각해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며 떠들고 다니는 모습은 이미 과거가 돼있을 것이다. 대신 우리는 일상 곳곳에 포켓몬 고와 같은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글에 앞서 먼저 자신 신고를 하자면 나는 아직 포켓몬 고를 다운로드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 포켓몬 고는 갑자기 나타나더

니 (데이팅 앱) 틴더나 트위터 같이 앱 이용자 수 상위권에 있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보다 앞으로 눈부신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기술을 처음 적용한 데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포켓몬 고를 눈여겨봐야 한다. 피카츄(포켓몬 게임의 주인공)가 보내는 신호는 새로운 기술, 앞으로 펼쳐질 삶의 미리보기이기 때문이다. 포켓몬 고를 경계하는 주장도 일견 이해가 간다. 어쨌든 비디오 게임은 애초에 증강현실 기기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개선되고 개발자들이 모두가 흥분 취할 만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선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1년쯤 전에 처음으로 가상현실 안경을 써보고 정말 새 세상을 만난 것처럼 흥분했다. 그 전까지 가상현실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빈방에 들어가 헤드셋 하나를 끼는 것만으로 대도시 고층 건물 꼭대기에서 위태롭게 서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뒤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때 나는 우리가 이미 가상현실을 발명해냈다는 것을, 우리의 과제는 가상현실 개발 자체가 아니라 이미 개발한 가상현실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어가고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비용과 가격을 낮춰 더 흥미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다면 실제 삶의 대체제로 정말 가상현실을 더욱 즐길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한 10년 정도면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포켓몬 고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출퇴근길에 가상현실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지루해서 견디지 못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것이다.

나는 인간이 결국 모든 기계의 손에 멸종되리라는 식의 비관론적인 공상과학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소설 ‘Ready Player One’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가상현실 콘솔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미래는 충분히 현실적인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약물에 비유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약물은 세상에 불만이 많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값싼 도피처를 제공한다. 잠시라도 이들을 행복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항정신성 약물, 환각

제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은 소비재에 쓰이는 기술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더 나은 소비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면 개발과 개선이 장려될 일이다. 그래서 증강현실은 앞으로 계속 더 나아지고 더욱 재밌어지며 중독성도 강해질 것이다.

한 가지 더. 현대인은 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마취성 약물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놀라울 만큼 많다. 실리콘 밸리는 로봇이 인간의 일을 모두 빼앗아갈 때를 대비해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다. 즉 현실이 워낙 팍팍하다보니 가상현실이 엄청난

게 환상적이고 꿈같은 이상향을 그리지 않아도 현대인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뜻이다. 결론으로, 증강현실은 포켓몬 고를 통해 세상에 본격적으로 선을 보였다. 시작은 장난감이었지만, 끝은 증강현실은 하나의 산업이 되고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결국 우리 삶의 뼈통을 수 없는 일부가 될 것이다. 인간이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를 위해 경쟁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소통할 때도 꼭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규범이 도전을 받을 것이다. 증강현실이 사회의 모든 규범을 하나씩 되돌아보게 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기

삶의 대체재 가상현실 10년 내 일상화... 인간답게 살 방법 찾아야 가상의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반응체제 수립필요

우리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기

술이 바뀌려 노력 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포켓몬 고이기에 게임을 하던 하지 않던,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편 이슬람권·중동서도 포켓몬 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슬람 종교계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관련기사 6면).

다. 우리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기